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달리고 달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룸내는 경남중고교

慶南中高同窓會報

발행 · 편집인 **허 범 도**
편 집 주 간 **이 상 룡**
발 행 처
경남중고등학교 본부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O/T 411호
Tel. (051)245-7561~3 Fax. (051)245-7560
제작 **시인뜰** Tel. (051)245-2337

1968년 6월 1일 창간 www.kyungnam.or.kr 제403호 – 2014년 10월 15일 발행

봇물 터지듯 가을걷이 동문행사 풍성

동창회보를 구독하시는 것
모교와 동창회를 도우는 일입니다.

'2014 용마의 밤' 12월 11일 경남중 대강당
기별야구 개막, 바둑최강자전에 관심 집중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각종 동문행사가 풍성한 가을걷이처럼 잇달아 열리고 있다. 노장청 동문들이 두루 참여할 수 있는 야구, 골프, 바둑 등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어 용마가족들의 관심이 크다. 사진은 지난 2012년에 열린 '용마의 밤'.

하반기에 들면서 각종 동문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에 따라 상반기에 각종 행사를 자제했던 지역 및 기수별 동문회는 하절기 더위가 가시고 추석을 거치면서 미루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특히 12월 11일에 '2014 용마의 밤'이 예정되어 있어 동문행사 열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부동창회는 지난 9월 1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격년으로 열리는 '용마의 밤'을 오는 12월 11일 경남중 강당에서 열기로 했다. 참석 동문들의 교통편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경남중학교에서 대규모 동문행사를 여는 것은 새 교사를 준공한 후 처음으로서, 신축 교사와 모교 역사관 등을 둘러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장기쟁탈 제46회 기별야구대회는 지난 10월 5일 경남고야구장에서 '플레이볼' 하여 1개월에 이르는 장정에 들어갔다. 장년부와 청년부로 나뉘어 벌이는 이번 대회에는 연합팀과 단일팀 모두 24팀이 출전했다. 대회 입상자는 11월 1일 폐회식에서 시상한다. 지난해에는 28회와 34회가 장년부에서 공동우승했고, 청년부에서는 47회가 패권을 차지,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바 있다.

또한 동창회장기 제16회 용마골프대회가 11월 3일, 동래 베네스트 컨트리클럽에서 티업한다. 50개조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용마골프대회는 기별대항 단체전을 비롯해서 단체전 개인조(Gross 방식) 개인전 A, B조(뉴페리어 방식) 그리고 용마가족 여성부 개인전을 벌이며, 빈츠홀인원상과 이글특별상도 마련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용마고수들의 일대 격돌이 예상되는 제1회 용마바둑최강자전이 오는 11월 8일 서면 소재 푸른기원에서 막을 올린다. 지난해 Yes24배 고교바둑대회 우승 기념으로 기획되었던 바둑최강자전은 '용마명인'의 향방과 관련하여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창설된 용마당구대회가 두 번째 기별대항전을 오는 11월 22일 뉴 다빈치 당구클럽에서 펼친다.

이밖에도 28회 동기회가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가지는 등, 동기회와 동호회, 지역동창회가 풍성한 가을행사를 준비해 두고 있다.

모교 심벌의 비사가 밝혀졌다
한준석 고문, "배지 도안자는 한규설 선배"

모교 심벌 마크인 교표의 탄생 비밀이 밝혀졌다. 69년 만의 일이다.

재경동창회 한준석(3회) 고문에 따르면, 모교 교표를 도안한 주인공은 1회 한규설(사진) 동문이다. 모교 교표는 광복 이후 일본인 교사와 학생들이 떠난 뒤, 제국주의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에서 구성된 학생자치회가 교모와 함께 제정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재경동문회 김경회(9회) 고문이 한준석 고문과의 통화에서 밝혀진 것이다. 한준석 고문에 따르면, 학생자치회(회장 정봉식)가 교표 제작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한규설 동문의 제안을 채택한 것이다.

교표를 제정한 정확한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쌍백선을 사용한 '=中='으로 결정한 것으로 미루어, 1946년 3월에 교명을 부산제2공립중학교에서 경남공립중학교로 변경하기 전에 결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남중학교 교복에도 쌍백선을 사용했으므로 교명 변경과 함께 채택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남고의 경우, 학제 개편에 따라 부산제1고등학교로 분리하면서 '–高–'로 결정했다. 교표의 핵심인 여덟 개 모서리는 용마의 슬기가 사방팔방으로 세계에 뻗어나감을 의미한다.

교표 도안자가 한규설 동문이라는 사실은 밝혀졌으나, 한 동문이 기억을 되살릴 수 없는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교표 채택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과 등은 확인할 수가 없다.

<관련 기사 8면>

이태석 동문 생가 복원, 개관하다
'톤즈거리' 명명식, 기념사업 추진도 잇따라

이태석 동문의 생가가 복원계획을 세운 지 1년여 만에 준공되어 일반에 개방되었다. 개관식에는 유족과 기념사업회 관계자, 모교 교장, 박극제 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태석 동문의 생가가 복원되었다. 이와 함께 이태석 동문 기념사업도 잇따라 추진된다.

부산시 서구는 지난 10월 8일, 남부민2동 611-340번지 생가 복원사업 현장에서 개관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시가 지원한 4억원을 투입해 착공한 생가는 방 3칸에 부엌 1칸으로 단출하고 소박하게 복원되었다.

개관식에는 이 동문의 어머니 신명남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이태석 신부 참사랑 실천사업회 이사장 이강영 신부, 모교 서강태 교장, 서구 단체장과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생가 복원사업의 의미를 되새겼다.

본회 명예회원(24회)인 박극제 서구청장은 개관기념사에서 "이태석 신부님이 보여준 고귀한 사랑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귀감이 되고 있다"고 추모하고 "지금은 비록 규모가 작지만, 머지않아 성인으로 삼다 가신 신부님의 참사랑을 계승, 전파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6면>

모교발전기금 내신 동문(본부)

2014년 7월 10일 ~ 2014년 9월 25일

장영근(22회)	1,000,000원
박재인(22회)	500,000원
노세현(22회)	400,000원 (누계 1,400,000 원)

총 누계 금액 : 11억 4,798만원

부산 서구청, 모교에 1억원 지원
자율형 공립고 지원협약 의거해 5년간

부산시 서구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교에 1억원을 지원했다.

모교는 지난해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서 서구와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서구청은 모교가 지역의 명문으로 성장하도록 2017년까지 해마다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모교 당국은 지원금을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습 프로그램 개발, 수업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해 모두 3억원을 학교운영비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창회보 구독료를 보내주신 분이 2,800명을 넘었습니다" 부산은행 028-01-032909-1 예금주 경남중고동창회

재경 용마골프대회, 노·장·청 220여명 참가

박원세(26회) 권철주(27회), 그린재킷 영예 누려

상반기의 정기총회와 함께 재경동창회의 주요 대규모 행사인 용마골프대회에는 한준석(3회) 고문 등 원로동문을 비롯해서 중장년층과 청년층 동문이 참여해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노장청 용마가족 220여 선후배가 초가을 필드를 라운딩하며 단합과 결속을 다졌다. 재경동창회의 하반기 최대 행사인 용마골프대회가 지난 9월 25일 엘리시안 강촌CC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30~40회 기수 동문들의 참가가 두드러진 가운데, 지난해 챔피언 26회가 강세를 이어갔으며, 단체전과 개인전을 휩쓴 27회가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다.

선수조 단체전 우승은 26회(시니어부)와 27회(일반부)가 차지했고, 박원세(26회), 권철주(27회) 동문이 각각 그린재킷의 주인공이 되었다. 친선조 경기에서는 골드시니어부 서영태(12회), 시니어부 김종훈(23회), 일반부 정공식(32회) 동문이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시상식에서 전재호 재경회장은 동창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후배 발굴과 선후배 동문 상호간의 사랑과 우애가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대회에 직접 참여한 30~40회 기수들이 가까운 미래에 용마가족을 이끌 주역"이라고 말했다.

감사기념패를 받은 신준호(14회) 명예대회장은 "경남중고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큰 행사를 치르는 학교는 결코 많지 않다"고 말하고 "대회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이처럼 자랑스러운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된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대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허범도 본부회장도 "선배동문들이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주어 감사하다"면서 "멋진 대회를 위해 골프장을 주선해준 허창수(21회) GS그룹 회장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상식에는 한준석(3회), 김경희(9회) 고문과 김정명(9회) 동문의 건배제의에 이어, 김연일(17회) 동문의 섹스폰 연주와 베이스 허균형(52회) 동문의 독창이 분위기를 돋우었다.

승효상(25회) 동문 서울시 총괄건축가

국내 최초, 부시장보다 상위직 도시계획, 공공건축 기획 감독

세계적인 건축가 승효상(25회) 동문이 서울시 총괄건축가(City Architect)로 추대되었다.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시는 9월 18일, 서울의 공공건축물과 도시계획, 조경을 기획하고 감독할 초대 총괄건축가로 승 동문을 위촉했다. 부시장보다 상위 직급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으며, 2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

승 동문은 취임사에서 "6백년 수도인 서울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강남-북이 아니라 도성 안팎을 구분해서 개성 있는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확정된 서울역 고가도로 보행 전용 '하늘길' 개통도 승 동문의 작품이다. 또한 북악산-한강을 연결하는 보행 데크를 설치할 계획도 밝혔다.

갈수록 두각 드러내는 용마합창단

고교합창제 출연-주도, 각종 행사에 초청 쇄도

서울용마합창단이 9월13일, 두 번째로 맞은 대한민국 고교동문합창제를 주도했다. 남성합창단으로 광수복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서울용마합창단에게 공연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데, 재경 부산여고동창회도 10월28일 행사에 특별히 초청했다.

지난 6월 부산시민회관에서 홈커밍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른 서울용마합창단(단장 이종순, 18회)이 더욱 눈부신 활약상을 보이며 모교와 동창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서울용마합창단은 지난 9월 13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고교동문합창제'에서 <축제의 노래> <사공의 그리움>을 합창해 갈채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동문합창제에는 경동고, 대전고, 동성고, 배재고, 부산고, 서울고, 양정고(가나다 순) 동문합창단이 출연해 지난해에 견주어 참가 동문회가 2배로 늘어났다. 이제에도 대원외고, 대일외고, 서울사대부고, 휘문고도 동참 의사를 밝혀와 동문합창제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게 되었다.

서울용마합창단은 9월 26일, 서울시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양도성문화제'에 출연해 동문합창제 출연진 100여명과 <아름다운 강산> 등을 연주했으며, 10월 8일 합창단 지휘자 배공내(18회) 동문을 초청연사로 한 릭형포럼에도 참석해 중창단 노래를 선물했다. 또한 오는 10월 23일에는 호산나만돌린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서 협연하고, 10월 26일에는 재경 부산여고동창회 행사에 초청받아 연주할 예정이다.

동창회보 기고는
yongma2007@hanmail.net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샘병원과 공식의료기관 협약

재경동창회, 직계가족도 진료비 감면 혜택

재경동창회가 효산의료재단과 업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창회보시는 드물게 공식지정병원을 두게 되었다.

재경동창회는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의 샘병원과 동창회 공식 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재경동문과 직계 가족들이 샘병원에서 치료할 경우, 진료비 경감을 포함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8월 22일 군포 G샘병원 호리마을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효산의료재단 회장인 이상택(13회) 재경동창회 고문을 비롯하여 황영희 재단 이사장, 박상은 의료원장, 차승균 병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재경동창회 측에서는 전재호 회장, 허훈(13회) 군포지역동창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이상택 동문은 환영사를 통해 "동문들 가운데 훌륭한 의학자와 의사들은 많은데 동문이 설립한 병원은 많지 않다"고 말하고 "샘병원이 생명을 사랑하는 병원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소망한다"며 동창회 공식 의료기관 지정 의미와 소회를 밝혔다.

전재호 재경회장도 "이상택 고문께서는 그동안 동창회 발전과 화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며 "이번에 또 동문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베풀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효산의료재단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거쳐 혜택 대상을 동문 기업이나 단체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샘병원은 항암제 중심의 기존 암치료법을 개선한 '통합 전인치유 시스템'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재경동창회, 2학기 장학금 6천6백만원

동문 및 동문 자녀, 경고 야구선수 등 34명 선발

재경동창회는 고려대 재학중인 임동규(61회) 동문을 희성장학생으로 선발하는 등 2014학년도 제2학기 장학생 34명에게 총 6천6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재경장학회는 지난 8월 29일 배재욱(17회) 이사장과 구본능(21회) 이사, 이범익(29회)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이사회를 열어 장학생 선발 안건을 의결하고 동문 자녀 5명(총 1천만원)과 대학 재학 동문 19명(총 4천4백만원), 경남고 야구선수 10명(총 1천2백만원)을 각각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2학기 장학생 34명은 1학기 48명에 견주어 14명이나 줄었는데 이는 장학금 신청자 중에 선발 기준 학점인 평점 3.5점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가 많은 탓으로 분석된다. 이범익(29회) 감사는 "1학기 장학생 중 5명이 학점 미달로 탈락해 안타깝다"고 밝히고 장학생들의 면학 열의를 독려하기도 했다.

재경동창회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재학생의 경우 학업 성적이 선발 기준(3.5/4.5 학점)을 유지하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수도권 대학 재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현행 연간 4백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한편 올해에도 8월 31일 현재, 조경래(19회) 동문이 4백만원, 구본능(21회) 동문이 2천70만원, 김홍근(21회) 동문이 4백만원을 각각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재경장학생: 황우현, 박소영, 서성준, 남정희, 손종현, 이윤호, 김강욱, 정윤우, 송민관(이상 동문 자녀)
- 경발위 장학생: 박창현, 임재환(이상 66회) 김준석, 조창석(이상 67회) 김려훈, 김태우, 서인재, 성우영, 심재호, 육경수, 이용훈, 조준형(이상 68회)
- 희성장학생: 임동규(61회) 배병찬, 백승준(이상 68회)

동기회 결성 농사, 수확이 크다

재경, 전담 부회장 위촉해 51~59회 동기회 결성

전재호 회장을 비롯하여 재경동창회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동기회 결성 추진사업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재경동창회는 수도권의 젊은 동문들이 급감하는 현실을 우려하여 전재호 회장을 중심으로 부회장단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51회 이후 동기회 결성'을 추진해 51회에서 59회에 이르는 9개 동기회가 조직되는 결실을 거두었다.

전 회장은 동창회에 '젊은 피'를 수혈하고 젊은 용마 기수의 맥을 잇기 위해 51회 이후 기수별 전담 부회장을 위촉해 이들이 직접 후배들과 접촉하도록 독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성복(22회) 재경동창회 수석부회장 등 전담 부회장들은 후배기수 대표들을 만나 식사를 함께 하면서 동기간의 결속을 다지게 했다.

이와 같은 선배들의 노력과 정성에 호응한 51회 이후 기수들은 지난 7월부터 동기회 조직에 나서서 집행부를 구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기별동기회 회장과 총무는 다음과 같다.

△51회=정진우-박성주 △52회=허균형-성운용 △53회=박우진-이재홍 △54회=조현임-김경원 △55회=유용석-진성후 △56회=김경진-김세진 △57회=조진욱-정구윤 △58회=최종빈-이창욱 △59회=민재익-이준혁

동창회 살림도 극심한 '불경기'

회비 납비 실적 저조, 동창회 활력은 답보

본부동창회 자문위원과 부회장이 분담하는 회비 수입이 매우 저조해 동창회 활동이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본부동창회는 회비분담 임원들이 100만원 이상을 1년 회비로 납부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회비수입 실적은 경남중고동창회 명성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명예는 누리고, 회임은 회피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동문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동창회 사무국에 따르면, 자문위원 58명, 부회장(명예부회장 제외) 106명 등이 회비분담 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9월 현재 2014년도 회비를 분담한 임원은 35명이고, 회비 수입 총액은 6,8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회장 분담금 3,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임원 분담금은 3,8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박상호(26회) 박병진(33회) 부회장이 각각 300만원을 분담했고, 문재인(25회) 명예부회장이 100만원을 분담했다.

이처럼 회비수입이 저조하면서 본부동창회는 고정비용 충당에 급급한 나머지 새로운 사업을 펼쳐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각종 지원사업에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모교 발전기금 모금 과정을 거치면서 '기부 문화'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탓일 것이라는 견해도 없지는 않으나, 동창회가 '외화내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회비 납부 현황, 21면 참조>

"경고 출신 '잘 뽑았다' 평가받고 싶다"

서병수 부산시장 취임 축하연, 오거돈 동문 축사에 박수 쏟아져

서병수 시장 취임 축하연에 참석한 동문들은 서병수 동문에게 거는 기대 못지않게 용마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제로 삼았다.

부산시장 서병수 동문 당선 및 취임 축하연이 지난 9월3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축하연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종혁(16회) 부산 남구청장, 노기태(20회) 부산 강서구청장, 하학삡(31회) 경남 고성군수 그리고 조정화(37회) 부산시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서병수 동문과 차원한 경합을 벌인 오거돈(21회) 직전회장도 축하연에 참석해 동문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허범도 회장은 "60년 만에 맞는 '청마의 해'에 걸었던 기대가 어긋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부산발전의 비전을 안고 열린 서병수 시장의 당선 첫해는 우리 동문들에게도 보람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허 회장은 "서 시장이 감당할 산적한 과제가 크고 무겁다"고 지적하면서 "서 동문이 '잘해 나가겠지'라고 지켜보지만 말고, 우리 모두 결집된 힘으로 성원하자"고 말했다.

특히 허 회장은 오거돈 동문의 참석에 대해 "큰마음, 깊은 뜻으로 화합의 장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용마동문이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누구도 흠내내기 어려운 이 화합과 조화의 움틴이 재학생 후배들에게도 닿아서 모교의 영광과 전통을 더욱 빛내자"라고 당부했다.

답사에 나선 서병수 동문은 축하연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며 "오거돈 선배가 섭섭했던 마음을 뒤로 하고 활짝 개인 모습으로 나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위로하고, "부산발전을 위해 경륜과 도움을 청하겠다"고 밝혔다. 서 동문은 "경고 동문임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경고인들 그늘 아래에서 정치인으로 순탄하게 걸어왔다"고 소회를 밝힌 뒤, "막상 시정을 맡고 보니 여간 힘든 자리가 아니다.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경고 출신 시장을 잘 뽑았다는 평판을 들을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협조를 요망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이용흠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서병수 시장을 염두에 둔 고차원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다. 위기의 부산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은 부산시민의 복이다. 이제 환태평양과 동북아의 주역으로 나서자"라고 강조했다.

오거돈 직전회장은 "축사를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했다"면서 "이제는 동문 여러분들이 난처해 할 일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패자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밝힌 뒤, "심제로는 내가 이겼다는 말도 있지만, 내가 축하하면 부산시민 100%가 축하하는 것"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오 동문은 "시장 혼자서 할 수는 없다. 성공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용마동문들이 도와주고 밀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한 다음, 서병수 시장이 "부산중고등학교에 더 관심과 애착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 '조짐어' 폭소를 자아내게 했다.

박맹우 동문, '여의도 입성'

박맹우은 울산시장을 3선했다

울산광역시장 연임 3선에 성공했던 박맹우(25회) 동문이 여의도에 입성,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했다.

박 동문은 지난 7월30일에 치러진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되었다. 박 동문은 "시민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시민의 뜻을 행정과 국정에 접목시키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동문은 198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남도 기획담당관, 함안군수, 울산동구청장을 거쳐 2002년 제3대 울산광역시장에 당선된 이래 내리 3선을 기록했다. 특히 광업도시 울산을 친환경적 프리미엄 도시로 격상시킨 업적을 인정받아 시민이 뽑은 최고 광역단체장의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부·울·경 동문연합회 친선 골프

부산, 울산, 경남지역 고교 동창회의 친선과 정보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부·울·경 동창회 연합회(회장 : 이용흠, 경남고 18회)의 친선 골프모임이 지난 7월 19일 개최고 분병욱 동창회장이 경영하는 경북 의성 '엠스클럽 의성 C.C'에서 개최되어 친목을 도모하였다.

제1회 용마바둑최강자전

11월 8일(토) 오전 9시 30분

부산 서면 푸른기원(051-806-7439)

참가비 : 3만원

부산은행 101-2013-3528-04

예금주 : 용마바둑 고승성

연락처 : 용마바둑대회 사무국장 고승성

(Mobile : 010-3580-3041)

많은 참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남고 대입수능결의대회, D-35 카운트다운

서강태 교장 "막바지 서퍼트에 전력을 다하자!"

경남고는 지난 10월 9일, 3학년 재학생과 담임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능결의대회를 열고 '수능대박'을 다짐했다. 오는 11월13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결의대회를 가진 모교는 '수능 D-35'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며 학습 분위기 조성과 수험생 격려 프로그램을 펼치기로 했다.

서강태 교장은 결의대회에서 "결승점을 앞두고 막바지 스퍼트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수험생들에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후라 경고!" 구호를 유도하며 결의를 북돋우었다.

결의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한 오거돈(21회) 직전회장은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치른 다음, 과연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되물어 볼 때, 후회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임하자"고 격려했다.

경남고 3학년생들이 수능결의대회를 가졌다. 모교 당국은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프로그램에 동문들도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학생회장 김민재 군은 모교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3년 전에 우리는 이곳에서 만났다. 이제 떠날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 경고에서 뗏은 인연과 다진 우정을 영원히 간직하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응원가 제창으로 막을 내렸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뒤, 오거돈 직전회장과 류명석(31회) 부회장, 31회 동기회 임원들은 서강태 교장과 백영선 교감 그리고 3학년 담임교사들을 초량 이바구길 소재 '달마협동조합'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분주한 2학기, 학습분위기 조성

경남고는 8월 25일 2학기를 개학했다. 이날 우천 관계로 교내방송으로 진행된 개학식에서 서강태(30회) 교장은 "새로운 각오로 학업 향상을 위해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대입 수능을 앞둔 3학년생들은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해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했다.

서강태 교장은 대입 수능을 대비하는 면학 분위기를 안착시키기 위해 후배 재학생들에게 "양심에 의한 자율정신으로 교칙을 준수함으로써 명랑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누릴 것"을 강조하고 "매사에 교우를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경남고는 오는 11월 13일에 실시되는 대입수능과 관련하여 'D-35'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을 꾀해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 2학년생들은 수능을 앞둔 선배들을 후원하고 성원하는 걸개그림과 격려 벽보 등을 내걸어 수능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모교 당국은 재학생 후배들이 펼치는 수험생 격려 캠페인 행사에 동문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교감영입, 경쟁 치열했다"

모교 백영선 교감 부임, 자공고 운영의 실력자

모교 백영선(오른쪽) 교감과 서강태 교장이 '환상의 콤비'를 이룰지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남고 교감에 백영선 선생이 부임했다. 2년간 모교 교감으로 재직한 김용성 선생은 명호고 교감으로 전근했다.

교감으로 승진, 부임한 백영선 선생은 부산대 사범대 일반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백 교감은 부임 인사에서 "학생 여러분이 꿈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생각하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백 교감은 부산 교육계에 자율형 공립고와 관련해 다양한 경험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는데, 전국 자사고 자공고 컨설턴트를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시 교육과정 컨설턴트와 자유학기제 컨설턴트를 맡고 있다. 교육감상 2회를 포함하여 한국게발원 장상, 교육부장관상 그리고 대통령상까지 수상했다.

백영선 교감 초빙과 관련해서 시내 몇몇 학교가 상당한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강태 교장이 교육청 담당 장학사를 만나 담판을 벌였다는 후일담도 나돌고 있다. 심지어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도 이번 인사에 관심이 컸다는 뒷말까지 있다.

백 교감은 서 교장의 초빙제의를 받고 주위의 조언을 구했더니 모두가 "무조건 가라!"는 답을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거제여중에 재직하는 부인 안정희 선생은, 춘천지검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에이팩스의 고문변호사와 율산시 특별자문변호사로 임하는 안종택(27회) 동문의 누이동생이다.

경고 수학여행 10월 19일부터 12월 24일에는 용마축제 펼쳐

경남고 2학년생들은 오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다. '테마가 있는 수학여행'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번 수학여행은 지난해 학생들이 발표회를 가지고 직접 3가지 주제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에 따른 것이다. 모교 당국은 제주지역 동문들에게 협조를 구할 부문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월19일 학생회장선거를 치르고, 24일에는 '용마축제'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모교 당국은 수능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강태 교장은 "서부교육청 관내 중학교 교장단과 모임을 갖고 모교 진학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와 별도로 교사들이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홍보물 등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교는 중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경시대회를 오는 11월 27일에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이 대회에 1백여명이 참가했는데 우수 입상자 20명을 선발, 시상한 바 있다. 본부동창회는 신입생 유치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중학교 교장과 교감,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동창회보를 발송하기로 했다.

경남중 난타팀, 1년 만에 전국 2위

부산국악대전 차상, 믿지 못할 쾌거에 "신난다!"

경남중 난타팀이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당당 2위를 차지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이번 쾌거는 교장 이요섭(단체 사진 맨 오른쪽) 동문과 서보균(단체 사진 맨 왼쪽) 교육복지사, 지도강사 남선주(이요섭 교장 옆) 선생과 후배들이 혼연일체를 이루어 낳은 '작품'이다.

엊그제 '걸음마'를 시작한 경남중 난타팀이 보란 듯이 성큼성큼 걷고 있다. 맨 처음으로 참가한 전국대회에서 당당하게 2위에 오른 것이다.

경중 세로토닌 난타팀은 지난 10월 4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전국국악경연대회 제21회 부산국악대전 중등부 타악부문에 참가해 2위 입상인 차상을 차지했다. 팀을 구성한 지 1년여 만에 거둔 쾌거이다.

모교 이요섭(27회) 교장은 "예상치도 못한 뜻밖의 입상 소식에 선생님들마저 '정말이냐?'며 놀랬다. 누구보다 난타팀 학생들이 좋아해서 무척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연주지도를 맡고 있는 남선주 강사는 "전공자, 또는 전공할 학생들이 참가하는 전국대회에서 이런 성적을 거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사분란하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입상 배경을 설명했다.

잠재력의 기폭제는 '용마음악의 밤'

경중 난타팀이 결성된 것은 지난해 5월이었다. 학습 멘토링과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서보균 교육복지사가 주도했다. 그는 "한 부모 가정의 학생을 비롯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모아 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당초에는 공연보다 정서순화와 생활지도에 더 무게를 두었다.

한 달쯤 뒤에 또 다른 난타팀이 나타났다. 그게 세로토닌 난타팀이다. 세로토닌 난타팀은, 청소년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이시형 박사가 설립한 세로토닌문화원이 2011년에 삼성생명(주)과 문화MOU를 체결하고 창단한 '세로토닌 드럼클럽'을 이르는 것이다.

지난해 모교도 이 클럽에 가입함으로써 '경남중 세로토닌 난타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이요섭 교장이 삼성생명에 북을 비롯한 연주 장비 협찬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연유에서였다. 세로토닌 난타팀은 생활교육부가 주관했는데, 두 난타팀이 올해 통합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용마음악의 밤' 협연 요청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서보균 교육복지사는, 해양대 기계과를 다니다 말고, 동명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골수 복지맨'으로 2009년에 모교에 부임했다. 자원봉사 지도에 주력했던 그가 '관심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창안한 난타팀은 1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두루 거두고 있다. 그의 표현대로 "단원 선후배간의 우애가 너무 두터운 게 오히려 염려스럽다"고 할 만큼 성공적이다. 연주 실기를 지도하는 남선주 강사의 평점도 매우 양호하다.

"몇몇 도중에 이탈한 학생이 있지만, 연습과정을 참고 이겨낸 친구들은 아주 좋아졌다. 개인상담도 병행하지만, 북을 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 주효한 듯하다. 왕따를 당할 아이들도 형들과 잘 어울리는 걸 보며 보람을 느낀다. 남을 배려해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한 것이다. 다소 과격했던 친구들도 많이 부드러워졌다. 무엇보다 단합이 잘 된다는 게 보기가 좋다."

5살 때부터 한국춤을 배운 그는 경성대 이영희 교수에게 사사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중견 예인인데, "같은 또래의 자식을 둔 엄마의 눈높이로 지도한다"고 말한다. 경중 난타팀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2시간씩 연습한다.

공연요청 줄이어도 악기 부족, 연습실 부재

그러나 모교 당국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과제도 적지 않다. 지난 6월, 데뷔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른 데다가,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를 비롯해 많은 선배들의 찬사를 받은 영향으로 난타팀에 들어오려는 후배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이들의 '소원수리'를 모두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연습할 북이 15개밖에 없고, 전용 연습실도 없다. 서보균 복지사는 "연습 요일을 조정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하지만 궁여지책"이라고 했다.

경남중 난타팀은 '용마음악의 밤' 이후로 공연초청을 받고 '서부 노래하는 학교', '부산예술회관 예문페스티벌'에서 연주했으며, 오는 10월 22일 개막하는 ITU전권회의 범시민지원협의회가 부산시청 초록공원에서 펼치는 발대식에 특별공연팀으로 초청을 받아 공연할 예정이다.

세로토닌은 주로 의학에서 쓰이는 생화학 용어이다. 사람의 뇌간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집자 주]

함께 외친 '후라 경고!',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마삼록 선생 정년퇴임, 서 교장 "우리 시대의 큰 귀감이었습니다"

마삼록 선생 부부(가운데)를 축하하기 위해 주례여중 제자들이 케이크와 떡을 마련해 퇴임식에 참석했다.

"투철한 신념과 사명감으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한 참스승으로 존경받으셨고, 동료간에는 우의가 깊었으며, 후배교사들에게는 솔선수범한 교육자로서 우리 시대의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2학기를 개학한 8월 25일 경고 체육관, 서강태 교장의 축사가 계속되었다. 모교에서 3년 6개월간 국어교사로 봉직한 마삼록 선생의 퇴임식이 열리고 있었다.

마삼록 선생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동아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율산현대중 교사로 부임한 이래로, 주례여중, 중앙고, 부산고, 경남고, 다대고, 부산여고를 거쳐 2011년 다시 모교로 부임했다.

정년퇴임식에는 부인 김효예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오은택 부산시의원, 조성윤 동의의료원 신경외과장 등 주례여중, 중앙고, 경남고(50회) 제자들이 대거 참석해 정년을 맞은 스승에게 감사했다. 또한 권중일 전 부산여고 교장, 글로벌청소년교육문화 김일준 대표를 비롯한 교육계 인사와 임찬호 LG유플러스 사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교직 34년의 노고를 송공(頌功)했다.

마삼록 선생은 "한 번 근무하기도 힘든 경남고에서 두 번이나 근무하면서 경남고에 대한 애정과 추억이 많이 쌓였다"고 밝히고, 7년 6개월을 근무하면서 3학년 담임을 다섯 차례나 하며 "힘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많은 제자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젊음과 정의와 자유를 논하고, 때로는 운동장에서 젊은 함성의 여러분과 '후라 경고!'를 외친 지난날이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회고했다.

마 선생은 자신을, 아직까지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마디 못한 "무뚝뚝하고, 멋없고, 가진 것 없는 경상도 사내였다"면서 "김효예 여사님! 이 자리를 빌어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고맙고 감사한 말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이날 퇴임식은 마삼록 선생의 "경남고여! 영원하라!"는 선창에 재학생들이 "경남고 파이팅!"으로 화답하는 것으로 마쳤다.

'용마음악의 밤' KNN 녹화, DVD 출반

'용마음악' DVD

지난 6월 5일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용마음악의 밤' 공연실황을 담은 DVD가 출반되었다. KNN이 녹화한 공연실황 DVD가 출시됨으로써 공연회에 참석하지 못한 동문들은, 110분간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동영상으로 미흡하나마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되었다. 원하는 동문은 동창회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구입할 수 있다.

"모교도 기념사업 자산입니다"

이태석 신부 생가 복원한 박극제(명예 24회) 동문

부산 서구청장 박극제가운데 사진) 동문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고 생가를 찾아오면, 서구의 문화와 역사를 새롭게 살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태석 동문의 동상에 세워져 있는 모교는 문화재로 지정된 덕형관과 함께 이태석 신부 기념사업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복원된 생가(오른쪽 사진)를 순례하고 모교 연못가에 건립된 이태석 동문 동상(왼쪽 사진)을 참배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남부민2동 611-340번지 골목 어귀에는 넓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스스로 향기를 내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떠난 이태석 동문의 생가가 복원되었음을 알리는 걸개였다. 생가가 복원됨으로써 그가 펼친 숭고한 사랑과 봉사의 궤적을 좀더 가까이 순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태석 동문 관련 사업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박극제 서구청장의 감회도 이날따라 유달리 보였다. 모교가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신청할 때부터 발 벗고 나섰던 인연으로 명예 24회 동문이 된 그는 기념사업이 이제 비로소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고 했다.

"복원한 생가가 규모는 작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이곳이 이태석 신부님의 참사랑을 전파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이 일대를 방문한 분들이 1천명을 넘었습니다. 이제 생가 복원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도 문을 열게 되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좀더 차분하게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구청은 지난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열어 송도성당에서 부산혜송학교 사이의 500m 구간 도로에 대해 '천마로 50번길 1, 2'라는 행정도로 이름말고도 '이태석 톤즈거리'라는 명예 명칭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박극제 구청장은 이 일대 전체가 '이태석 신부마을'로 조성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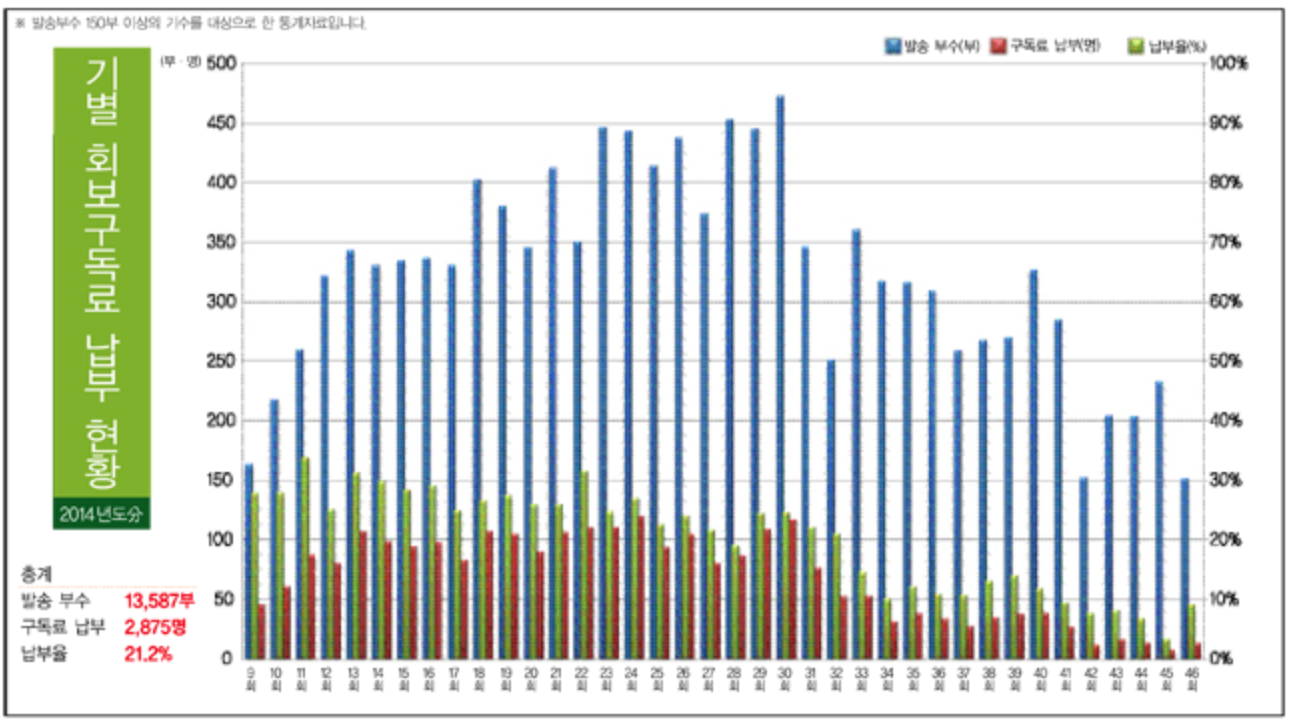
"이곳 송도성당 언저리 1만여 평이 주거환경 관리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당장 내년부터 모두 52억원을 투입해 2016년 말까지 기념관과 기념공원, 톤즈 빌리지, 톤즈거리와 같은, 생가와 연계한, 문화시설이 조성되면 남부민동 일대가 신부님의 나눔 정신을 전파하는 성지가 될 것입니다."

이태석 동문의 생가는 한국전쟁 직후에 부산에 살던 호주인들이 지은 집들 중의 하나였다. 방 3칸에 부엌 1칸으로 단출한데 이 동문의 형인 이태원 씨의 고증을 받아 복원되었다. 방 한 칸에는 이 동문의 유년과 모교 재학시절을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작은 앉은뱅이 책상과 책, 그가 좋아했던 기타, 사진 자료가 전시되었다.

또 다른 방에는 톤즈마을에서 활동한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이 전시되고 있고,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을 비롯한 각종 영상물을 상영하는 공간도 마련돼 있어서 이 동문의 감동적인 삶과 정신을 간접으로나마 만나볼 수 있다. 생가 관리는 이태석신부 참사랑실천기념사업회가 맡는다.

그런데 복원된 생가의 전시물들은 이 동문이 직접 사용한 것들은 아니어서, 당시의 자료들을 갖고 있는 동문들이 기증하거나, 모교 당국도 관심을 갖고 협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극제 동문도 모교와 동창회의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우리 서구의 문화와 역사를 새롭게 살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부민동 일대가 신부님의 나눔 정신을 널리 퍼뜨리는 성지가 될 겁니다. 경남고는 신부님 모교이고, 동상도 세워져 있고, 무엇보다 그분이 공부한 덕형관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교도 기념사업의 주요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코스를 경고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모교와 동창회가 내방객 안내 계획을 마련한다면 힘껏 도울 겁니다."


※ 발송부수 150부 이상의 기수를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입니다.
기별 회보구독료 납부 현황
2014년도分

총계
발송 부수 13,587부
구독료 납부 2,875명
납부율 21.2%

용마열전 ⑧ / 수산계의 숨은 영웅, 한규설(1회) 박사

문학인 압도하는 저술가 모교 교표 탄생의 주역

김경희(9회, 재경동창회 고문)

'의끌이', '쌍끌이'라는 생소한 수산 용어가 하루아침에 국민적 유행어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던 1999년의 한일어업협정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미완의 난제로 남아 있다. 그 가공할 '재앙의 조짐'을 즐기차게 제기하며 과학적인 정책 시스템의 필요성을 촉구한 수산인이 바로 한규설 동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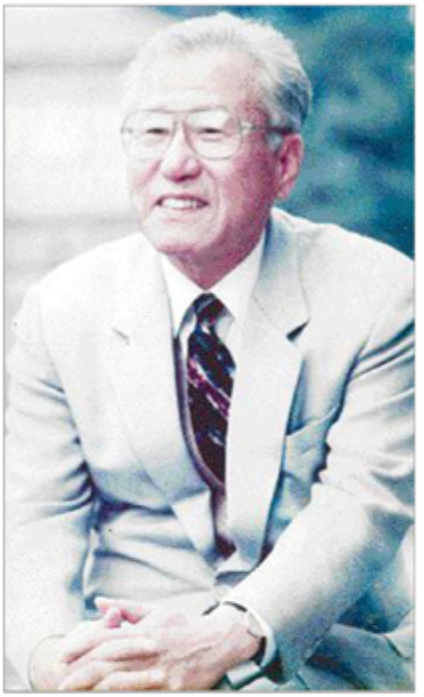
현실과 제도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무던히도 괴로워했던 한규설 선배는 왕성한 탐구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을 누비며 어민과 어촌의 실태를 직시하고 정책수립을 촉구한 실사구시학파 신봉자였다. 수산인의 철학을 소탈스럽게 다듬은 솜씨가 빼어난 자랑스런 용마 한규설. 그는 일찍이 마구잡이 어로 실태를 엄중하게 경고했다.

"법규대로 고기를 잡는 배가 없을 만큼 부정 어업이 상습화되었다. 어민들은 잘못된 법규 때문에 다른 어민들이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마구잡이 어로에 나선다. 어업 자원은 재생될 겨를이 없고, 어업 경영도 어려움이 가중된다. 또한 시장개방으로 값싼 수입품이 범람하면서 고기 값마저 하락하니 어민들은 생존 위기감에서 또다시 불법 어로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규설 선배가 맨 처음으로 접한 수산업 지식이 바로 마구잡이 어업이었다. 1928년 6월 29일 경남 양산에서 평범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42년 모교의 전신인 부산제2공립중학교에 17대 1의 경쟁을 뚫고 입학하면서 총무동에 있던 작은 아버지집으로 왔다. 당시 남선전기 건너편 일본인 사택 밀집 지역을 지나 통학을 했는데 등굣길에 사택 입구에 생선 상자가 놓여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곤 했다. 그리고 상자 속의 생선들이 대구리-기선저인망 어선의 일본말-에서 잡은 것들임도 알게 되었다.

'대구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궁금했다. 몇 번이나 자갈치에 나가 깜냥으로 탐색하던 중에 마침 기선저인망어선의 일본인 어부를 만나게 되었다. 그 어부는 자상하게도 중학생인 한규설 선배에게 "기선저인망업은 그물을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 끌면서 고기를 잡는데 어획량이 가장 많으며 한번 출항하면 3일 넘어야 입항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때부터 한 선배는 자신도 기선저인망업을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해방이 되고 모교 1회로 졸업한 한규설 선배는 부산수산대학에 진학했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규설아, 너는 큰 어부가 되어 돈 많이 벌어라!"고 하신 말씀도 든든한 격려가 되었다. 수산대를 졸업한 그는 1949년 상공부 수산국 관리로 들어가 60년이 넘는 '수산인 한규설'의 긴 항해를 개시했다.



한규설 선배는 배낭을 매고 전국 어촌을 탐방하고 어부들에게서 직접 우리 수산업계의 실상을 목격하고 청취했다. 그가 우려한 관료들의 '탁상행정'의 허상은 신한일어업협정 협상 과정에서 '민낯' 그대로 드러나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어업경제사적으로 보면, 우리 수산업은 답답한 나머지 너무 많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구-어촌 순례, 몸으로 체득한 수산 현실

한규설 선배와는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다. 주로 동창회 사무실에서였다. 1993년 9월 어느날, 자신의 첫 저서인 <공동어장과 어촌>을 출판한 사연과 배경을 심명하고, 주요 언론에 신간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였다. 필자는 당시 중앙일보 문화부장이던 최형민(22회) 동문을 소개했고, 중앙일보 이순남 기자가 한 선배를 인터뷰해 '사람, 사람탓에 한 선배 저서를 크게 다루었다. 동아일보도 그해 12월에 '항구 순례, 몸으로 배운 어촌'이라는 큰 제목과 '수산-원양어업 산증인, 밥 닿는 대로 전국 배낭여행 현실 깨우쳐'라는 소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전면으로 게재하였다.

반년에도 책을 놓지 않을 만큼 독서량이 많았던 한규설 선배의 문장력은 문학도를 압도하는 수준이었다. 그뿐에도, 메모하는 습관이 유별났던 그는 굳이 스스로를 내세우는 법이 없는,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다. 학구열이 강해서 꼼꼼하고 생각이 깊었던 그가 가까이 지낸 친구는 김근준, 권오현, 정수봉, 정도희 선배와 같은, 동기생 중에서도 빼어난 분들이었다.

태평양전쟁에서 미군에게 밀리기 시작한 일본제국주의는 '지원병'이라는 미명 아래 조선인 학생들을 강제로 징집했다. 4학년이던 한규설 선배는 신창우, 김인택, 오수천, 임태근 선배와 함께 '소년비행병'으로 지원하였고, 김영배 선배는 '소년전차병'으로 지원했다. 징집 날짜가 다가왔을 때, 그들은 정도희 선배의 하숙집에 모여 술잔을 나누며 "부디 살아서 돌아오자"고 석별회를 가지기도 했다. 만약 광복이 1년만 늦었더라면 모두 전장으로 끌려가 서로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했다.

광복이 되고 일본인 교사와 학생들이 끌려가자 조선인 학생들은 학생자치회를 만들었다. 회장에 정동식 선배가 선임되고 교명을 무엇이라 정할지 논의하여, 일본인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었던 '부산중학교'의 다음이라는 차별적 의미가 담긴, '부산제2중학교'를 버리고 경남 전역에서 온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뜻으로 '경남중학교'로 결정했다.

교복은 어쩔 수 없이 일제 시절에 입었던 '쯔메에리' -스탠딩 칼라, 또는 스탠딩 칼라 양복- 그대로 했고, 모표는 '中'으로 간단하게 결정되었다. 문제는 배지(Badge)였다. 공모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며 논의를 벌이고 있을 때, 한규설 선배가 "내가 도안해 본 것인데, 한번 검토해 달라"며 디자인 도면을 내놓았다. 새로운 경남중학교의 배지는 양산 출신 골방파인 '똑똑이'가 제안한 디자인으로 어렵지 않게 채택되었다.

69년 만에 밝혀진 모교 배지 디자이너

그런데, 모교 배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69년 만에 찾아냈다는 사실은 이 지면에서 최초로 공개한다는 것을 밝힌다. 교가의 작사자, 작곡자는 이미 알려져 있는 바이지만, 배지의 탄생은 그 자초지종이 여태까지 규명되지 못했다. 이제 비로소 모교 배지의 탄생 비사가 밝혀진 것이다.

모교 배지를 디자인한 당사자가 한규설 선배라는 사실은 최근에, 그야말로 우연한 기회에 찾아낸 것이다. 지난 9월 27일, 재경동창회 고문인 한준석(3회) 선배와 통화하는 과정에서였다. 그 이틀 전에 열렸던 용마골프대회에 참가한 한준석 선배가 85세 연세에 불여나 무리하지는 않았는지 염려되어 문안차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뜻밖에도 배지 탄생 비사를 듣게 된 것이다.

그런데, 까맣게 몰랐고, 하마터면 영원히 묻힐 뻔했던 개교 초기의 비사를 발굴하였건만, 필자의 마음은 한없이 안타깝고 무겁기만 하다. 한규설 선배는 지금 요양원에서 지내고, 다름 아닌 파킨슨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배지 도안의 주인공에게 배지 탄생을 포함하여 초기 비사를 직접 확인할 수가 없는 현실을 어떻게 헤어하면 좋을까. 모교 초창기 역사는 지금 '파킨스병' 장벽에 막혀 있는 운명이다. 참으로 착잡할 따름이다.

한규설 선배는 자기 생활에 철저하여 매사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겼고, 목표를 세우면 끈질기게 파고드는 끈기의 소유자였다. 주변 관리에도 빈틈이 없었으며 적당하게 대충대충 넘기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했는데, 어촌 현장을 살살이 뒤지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꼼꼼함이 그를 돋보이게 한다. 감정표현에는 서툴렀지만, 그의 학구 태도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추상적인 것은 싫어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민족성을 늘 안타까워했다.

신한일어업협정 경과를 지켜보며 분개한 한 선배는 한동안 놓았던 붓을 들어 왕성한 저술 활동을 보였다. <어촌 경제구조의 관찰> <한국 어업제도 변천의 100년>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의 문제> <기선저인망어업의 난제>와 같은 노작은 허술하고 빈곤한 수산정책에 대한 준엄한 질책이었다. 한규설 선배는 자신의 저술에 대해 "어민 대중을 대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물론 일선 어민들도 읽고 그들의 현실을 법과 경제, 사회에 비추어볼 수 있다면 영광이겠으나, 고달픈 하루 일에 지친 그들보다는 어촌 지도자, 수산단체 관계자, 공직자들이 읽고 어민 대중에게 바르게 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수산부 기획(사무관)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한규설 선배는 1970년 산영어업㈜를 설립했고, 수산심의위원, 원양어업협회 부회장, 부산수산대 동창회장, 수산제도혁위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11년까지 해양수산부 자문역으로 한국 수산업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석탑산업훈장을 서훈했고, 동아대에서 명예박사학위도 받았다. 그는 불해사위 김종인(22회) 동문의 딸인 외손녀 소연에게 저서를 보내면서 이런 편지도 함께 전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은 그 자원인 고기를 오래 유지시키며, 그것이 산업으로서 지속되어 국민 식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법)가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일본)의 침략과 함께 시작하여 지금까지 여러 이유로 바뀌어 왔는데, 그것을 이 책에서 밝히고자 한다. 어업경제사적으로 보면 답답한 나머지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소연이가 대학에 들어가 머리말과 서론, 결언을 모두 읽으면 이 할아버지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2001. 4. 20 할아버지"

아흔 앞둔 스승과 일흔의 제자가 만날 때

서울·대구의 18회 동문, 이지구 선생 만나 옛 이야기 꽃피워

오랫동안 경남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친 이지구 선생이 서울과 대구, 양산 등지에서 찾아온 제자들을 만났다. 낙동강 하단 작은 주점에서 열린 사은회에서는 바이올린이 연주되고, 벤조를 울리며 부르는 노래도 곁들여졌다.

고희의 나이를 맞이한 18회 동기생 4명이 낙동강 하단 강변의 조그마한 주점'노리터'에 모였다. 50년 전 자신들에게 음악을 가르친 은사 이지구 선생을 모신 자리였다.

자리를 잡기 무섭게 난데없이 바이올린 선율이 흘러나왔다. 연주자는 대구에서 내려온 박석철 동문. 용마가족 중에 드물게도 서울대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그는 KBS교향악단에서 활동하다가 대구가톨릭대 관현악과 교수로 정년퇴임했다. 찾아뵙겠다는 전갈을 받은 이지구 선생이 "기왕이면 바이올린도 가져오면 안 될까?"라고 부탁한 것을 지킨 것이었다. 남일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워 경중 재학 시절에는 여러 차례 콩쿠르에 입상한 바가 있는 박석철 동문이었다.

앵콜까지 받은 박석철 동문은 더 연주하라고 보채는 친구들에게 "야! 연주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나도 듣고 즐기면 안 되겠니?"라고 투정 아닌 엄살을 부렸다. 이지구 선생도 은근히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주문하기도 했다. 용마합창단 초대 단장을 지낸 김지호 동문은 짓궂은 '폭로공세'로 가세했다.

"야, 석철아! 너 선생님 만난다고 열심히 연습하고 왔지 않니?"

경중-부여중생 동반가출 사건

지난 6월의 '용마음악의 밤'과 관련한 동창회보 기사를 통해 오랜 만에 이지구 선생의 근황을 알게 된 많은 제자들이 스승의 안부를 물어오고 있다. 머지않아 미국에서 찾아오는 동문도 있을 것이라 했다.

마치 '형과 아우' 사이로 비춰질 수도 있는 '사제간의 대작'이 익어가자 옛 이야기들이 꼬리를 물고 서슴없이 튀어나왔다. 희대의 가출 사건이 변 처음으로 올라왔다. 경남중학생과 부산여중학생이 동반해서 가출한 사건이었다.

앞뒤 가릴 것 없이 "퇴학시켜야 한다"는 것이 교무실 의견을 주류를 이루었다. 당시 모교에서 영어를 가르친 김근준(1회) 전 동창회장이 강경 방침을 주도했다. 이에 대해 "퇴학만큼은 안 된다"며 구명 의견을 낸 교사가 바로 담임교사 이지구 선생이었다. 이지구 선생은 김근준 동문과 얼굴을 붉히가며 맞서기도 했고 통사정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담임선생의 눈물겨운 호소가 먹혀들었다.

그때 구사일생으로 퇴학을 모면하고 용마가족에 합류한 이는 장형석 동문이다. 미국 LA에 살고 있는 장 동문은 연내로 한국에 와서 이지구 선생을 찾을 예정이다.

평생 벌지 못한 '오 벤또' 해프닝

이지구 선생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곳이면 어김없이 동반되는 또 다른 주인공은 정성희 선생이다. 정성희 선생과 관련된 해프닝은 헤아릴 수 없지만, 이날 재등장한 이른바 '오 벤또' 사건도 그 중 하나다.

정성희 선생은 수업 시간에 무작위로 호출해 배운 노래를 시켰다. 사고 당일 호출된 번호는 '26번'. 노래할 곡은 포스터의 <오, 수잔나>. 원가사는 "멀고먼 앨러배마 나의 고향은 그곳. 벤조를 울리면서 너를 찾아왔노라"인데 엉겁결에 평소 부르던 장난기 섞인 가사가 그만 튀어나오고 말았다. "벤또를 옆에 차고…". 자그마한 악기 '벤조'가 도시락 '벤또'로 돌변한 것이었다.

벤조를 가져와 노래하는 김지호 동문

'26번'은 불려나가, 예의 정성희 선생이 벌을 내릴 때 사용하는, 30Cm짜리 대나무자로 손바닥을 맞았다. 그런데 벌을 받는 '26번'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표정이 찡그려지기는커녕, 오히려 부러움만 잔뜩 묻어났다. 일부러 사고를 쳐 불려나가 손바닥을 맞는 사례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비록 손바닥은 아쓸지언정, 바로 코앞에서 정성희 선생을 바라볼 수 있는 '광영'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26번', 곧 오재동 동문은 '오벤또'로 호칭되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업체인 다이버스 회장 오재동 동문에게 그날 벤또 사건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이날 이지구 선생을 모신 주점 '노리터'에 동참한 그는 이렇게 털어놓았다.

"평소 부르던 대로 엉겁결에 나와 버렸지만, 그날 뒤로 노래라고 하면 주눅이 들었다. 평생 남들 앞에서 노래한 적이 없다."

그는 노래 대신 오디오에 음악적 열정을 쏟았다. LP 레코드를 2천장 넘게 소장하고 있고, 스마트폰에 6천곡이 넘게 저장해 듣는다. 다운받은 게 아니라 모두 CD를 구입해 저장한 것이다. 다만 6천곡 중에 성악 작품은 상대적으로 적을 따름이다.

바운드볼이 스트라이크 된 까닭

이지구 선생이 작사, 작곡한 경중 졸업식 노래도 화제에 올랐다. "형님들 졸업하면 내가 왕이다"로 시작하는 졸업가는 스코트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 일색이던 졸업식 풍경에 신선한 변화를 일으킨 노래였다.

이 노래는 1963년 2월 졸업식에 첫선을 보였는데, 선배들의 졸업을 은유적, 또는 다소 익살적으로 표현한 '형님들 졸업하면 내가 왕이다'라는 가사를 '충실하게' 해석한 나머지 일부 졸업생들이 이 노래를 부른 2학년 합창반원을 구타하는 일이 벌어진 것.

이지구 선생의 익살 가운데 토픽으로 전해지는 '못 말리는' 야구심판 사건도 이날 재조명 받았다. 1962년, 2학년 학급대항 야구대회에 심판을 맡은 이지구 선생은 자신이 담임인 2학년 7반 투수가 던진 원 바운드 볼을 스트라이크로 선언한 것이었다. 터무니없는 편파판정에 상대반 선수들은 물론 관중석에서도 항의가 빗발쳤다. 그러나 끝내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이지구 심판의 판정은 이러했다.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분명히 통과했다. 다만, 공이 땅에 닿은 것은 포수가 지나치게 뒤로 물러나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아흔을 앞둔 스승과 일흔의 제자가 번갈아가며 노래와 술잔을 주고받은 이날 만남의 아쉬움은 다만, 강변의 초가을 밤이 너무 짧다는 것이었다.

50년 전 경중합창단 악보 발견

故 한원진(18회) 동문 유품, 경중역사관 기증키로

50여년 전에 사용한 빛바랜 경남중 합창단 악보가 발견되었다.

발견된 악보는 '경중합창단용'이라고 인쇄된 요한 스트라우스의 <푸른 도나우>을 비롯해서 <신의 영광> 포스트의 <꿈길에서> <켄터키 옛집> 등 1960년대 초반 합창활동을 한 동문들이 기억하는 곡을 포함해 수십 곡에 이른다.

경중합창단 악보는 이른바 가리방-미세한 돌기가 돋아 있는 금속판-으로 등사된 것들인데, 한국교총 기관지 <한국교육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한 고 한원진(18회) 동문이 보관해온 것이다.

악보의 소재를 밝힌 장형석(18회) 재미동문에 따르면, 병문안하러 찾아간 자리에서 한원진 동문이 "복사해서 필요한 친구들에게 전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다.

합창뿐만 아니라 미술에도 재능이 뛰어났던 한원진 동문은 지난 2012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현재 악보를 보관하고 있는 김지호(18회) 동문은 "유품으로 남긴 악보가 워낙 방대하므로, 좀더 면밀한 분류와 고증을 거쳐야 한다.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한 다음, 경중합창단 악보만 가려내어 경중역사관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용 컴퓨터 27대 구입

최우철 동문 기부금으로 노후장비 교체

경남고 컴퓨터실이 최신 장비로 면모를 일신했다.

모교 당국은 동진섬유 회장 최우철(30회) 동문이 교육기부협약을 체결하고 기탁한 1억원 가운데 2천5백여만원을 들여 컴퓨터 본체 27대를 구입해 학생컴퓨터실에 설치했다. 1대당 가격은 27만원으로 조달청 G2B 사이트의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했다.

그동안 모교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사용연한이 경과되어 폐기한 컴퓨터를 얻어서 사용해 왔다.

소설가 허택 동문의 〈용마탐구〉 - 치매질환 권위자 김재우(29회) 동문

"잊은 약속, 지적받고 기억하면 치매는 아니다"

이유없이 배회하고, 고함-난폭행동 보이면 의심해야

지난 9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치매극복의 날'이다. 세계적으로 치매의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병으로 취급돼야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위험 수위까지 도달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돼 가는 우리나라에서 치매는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특별 관리돼야 한다. 이미 국민건강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인구 10명 중 1명의 발병률로 치매는 심각하게 우리 사회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치매에 의한 많은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용마가족 사회도 치매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동문 개개인의 가족 문제를 뛰어넘어 동창회 자체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모교 70년사 편찬 과정에서, 연로한 선배님 가운데 치매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늘면서 증언과 고증 작업이 난관에 봉착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내 치매 연구자 가운데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재우(29회) 동문에게 치매에 대한 특별 인터뷰를 부탁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김 동문은 파킨슨병에 관해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전문의이다.

일찍이 마약 헤로인의 부산물인 MPTP를 이용해 파킨슨병 동물실험을 국내 최초로 성공시켰고, 1998년에는 용접공들이 많이 다루는 망간에 의한 파킨슨병 환자를 최초로 발견, 이들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했다. 특히 국내 벤처 업체 퓨쳐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파킨슨병 조기 진단 시약을 서울에 이어 동아대병원이 두 번째로 내년부터 생산할 계획이어서 김 동문의 활약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김재우 동문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치매질환 전문의이다. 여건이 되면 집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만, 인지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상행동이 지속되면 가족들이 감당하기는 힘들다고 말한다.

연구-임상에서 전국적 지명도의 명의

⊙세계보건기구가 9월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정했다. 지정 배경과 연혁에 대해 소개한다면…

▲ 세계보건기구는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 및 조기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 최근의 치매질환자 발생과 관련한 현황은? 국내외를 망라할 때, 주목할 만한 사안이나 현상은?

▲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초기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고 2020년 이전에 1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은 올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선진국에서 50~110년에 걸쳐서 일어난 데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다.

⊙ 치매 관련 질환을 전공하게 된 특별한 사유나 배경이 있다면?

▲ 치매는 파킨슨병과 더불어 뇌에 생기는 대표적인 퇴행성질환으로 현대의학에서 암과 더불어 가장 해결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다. 또한 치매는 인간의 인지 기능과 행동에 대한 연구로 가장 흥미로운 영역이기도 하다.

⊙ 치매질환의 진단 및 치료법은 현재 어느 단계에까지 도달했는가? 완치법 개발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치료법의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 치매를 진단하는 기법은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뤄졌으나, 치료법은 아직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치매 중에서도 뇌혈관질환(중풍)에 의해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는 많은 부분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즉, 고혈압과 당뇨를 적절히 관리하고 담배와 식사를 조절함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인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는 현재 인지기능을 일시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는 약물이 최선이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치료도 답보상태다. 향후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밝혀진다면 치료 약물의 개발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신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자가진단법은 없을까?

▲ 치매를 스스로 진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당뇨나 고혈압과 달리 스스로 자신의 결함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치매가 되면 이미 이런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은 대개 치매가 아니다. 자신의 결함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치매 단계가 아직 아니라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오전 일, 오후에 반쯤 잊으면 진단받아야

⊙ 그러면 어떨 경우에 치매로 이행하는 전 단계라고 생각하고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을까?

▲ 모든 치매는 기억력의 감소로 시작하므로 기억력의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얼마나 그 정도가 심한가에 달려 있다. 약속을 잊어버려도 주위에서 그것을 지적해줄 때 기억이 나면 그것은 나이에 따른 단순 건망증으로 여겨도 좋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을 받고도 약속한 사실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몇 번을 다짐하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도 잊어버렸다면, 단순한 건망증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나, 오전에 일어난 일의 절반 이상을 오후에 기억을 하지 못하면, 이 또한 자세한 검사가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주위의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사항은 이러한 기억력의 감소와 더불어 사람이 전체적으로 퇴거와 달라져 보이는 경우, 예를 들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거나 주위에 대한 체면이 사라질 경우, 그리고 실수 없이 잘 가던 길을 못 찾고 잃어버릴 때, 더 나아가 환시나 망상,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경우를 보이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

⊙ 치매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 가장 흔한 두 가지 치매 종류에 따라 예방법이 다르다. 혈관성 치매(뇌혈관질환에 의한 치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심장질환을 관리함으로써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아직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완전한 예방이 어렵지만 규칙적인 식생활과 운동 그리고 우울증을 피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머리를 쓰는 활동, 즉, 독서나 대화 그리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치매환자를 집에서 돌볼 것인가, 요양시설에 맡길 것인가?

▲ 집에서 관리가 가능한 상태이면 가족들의 관심이 있는 간호가 더 낫다. 치매환자에게는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기능의 감소 수준을 넘어서 이상행동을 보이면 집에서의 관리는 무척 힘들어지고 가족들의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된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24시간 곁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을 자지 않고 몰아다닌다든가, 밖으로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유없이 집안에서 배회하고 때로는 고함을 지르며 난폭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때가 시설 입소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요양시설들의 경쟁과 난립으로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옮겨진 이후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치매질환의 증가로 치매가 가정의 안정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했다. 보건당국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 가족의 구성원이 치매가 걸릴 경우 그 가족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것은 우리 사회나 국가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치매는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야 한다. 최근에 치매환자를 수용하는 병원이나 시설이 많아졌지만 관리에서 많은 허점을 보이는 실정이다. 치매의 조기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사회와 국가가 더 많은 투자와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좋은 연구업적 쌓는 게 우선 목표

김재우 동문은 캐나다 콜럼비아대학 파킨슨병센터에서 이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로 꼽히는 도널드 칸 교수에게서 최신 진단법과 치료법을 집중적으로 전수하고 귀국한 뒤에 동아대병원에 파킨스병클리닉을 개설하고 파킨슨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SCI 국제학술지에 5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2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2004년에 부산경남치매학회를 창설,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대한신경학회 장과 대한파킨슨병학회장을 역임했다.

교수의 입장에서 "좋은 연구업적을 쌓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말하는 김 동문은 "제대로 된 시설과 의료체계에서 개인의 인격을 유지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택(25회, 치과의사)

가볍지 않은 오거돈의 '통 큰 양보'

서병수 동문의 사과 받아들여, 시민 찬사 만발

"서병수 부산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 큰 양보'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지방선거 후유증을 겪던 오거돈-서병수 두 동문이 전격적으로 화해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지역 언론이 내린 판단이다. 종북 관련 발언, 골프 라운딩 등 지난 지방선거 때, 서병수 동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고발을 오거돈 동문이 취하한 것이었다.

오거돈 동문은 선거 직후 가진 캠프 해단식에서 "잘못된 선거문화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힐 만큼 소송 강행 의지가 분명하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선후배가 격돌해 예측불가의 접전을 벌인 선거과정에서부터 냉가슴을 앓았던 동문들 역시 선거가 끝난 뒤에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고 소송의 향방을 지켜볼 도리밖에 없었다.

그러나 극단으로 치달린 미증유의 사태는 선후배의 진솔한 대화로 말끔하게 해소되었다. 후배의 사과를 선배가 받아들인 것이다. 오거돈 동문은 자신이 선거에서 '부산시민 대연합'을 부르짖은 사실을 환기시켜며, "부산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정파를 뛰어넘어 뭉치는 것이 바른 정치"라고 강조하고

오거돈 동문의 '통 큰 양보'는 서병수 동문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부엇이 진실인지 시민들은 이미 판단을 내렸다"고도 했다. 10월9일, 모교 수능결의대회를 마치고 3학년 담임교사들과 오찬을 나눈 뒤에 환담하는 자리에서 오형에 못 이겨 감연준 씨 (청산에 살리라)를 불렀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부산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시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여론은 오 동문이 "부산의 어른다운 결단을 내렸다"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부산시민들의 찬사는 적확했다. 오 동문의 '통 큰 행보'가 상당한 내공을 동반하고 있음은 지난 9월 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병수 동문 시장 취임 축하 모임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한 데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 동문은 자신이 축사를 하는 것에 대해 "난처하게 생각할 동문도 없지 않겠지만, 이제는 난처하게 생각할 일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하고 "내가 축하하면 부산시민 100%가 축하하는 것"이라며 서병수 시장에 대한 성원을 당부했다.

허범도 동창회장도 "용마동문이기에 큰 마음, 깊은 뜻으로 화합의 장에 나와 따뜻하게 축하해 주었다"며 "누구도 흉내 내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화합과 조화의 기풍이 재학생 후배들에게까지 이어져 빛나는 영광과 전통을 세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승자독식은 청산되어야 한다"

그동안 건강 문제로 외부 접촉을 삼갔던 오 동문이 모처럼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였다. 10월 9일, 모교에서 열린 재학생들의 수능결의대회에서였다. 우연한 자리에서 만난 교장 서강태 동문이 결의대회에 참석해 재학생들을 격려해 달라는 요청을 물리칠 수 없어서 나왔다고 했다. 오 동문은 "후라 경고!" 구호를 선도하며 재학생들의 분발을 독려했다. 3학년 담임교사들과 가진 오찬자리에서도 시종 좌중을 주도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고소 취하에 대해 의아해 하는 시민과 동문들이 적지 않겠지만 자신의 부산사랑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했다. 그는 "서병수 동문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며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데 2-3년이 소요된다. 어리석은 일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이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용마동문들이 "부산시정에 소극적이었다"면서 "동문 시장이 취임해 다행스럽다. 성공하는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 용마가족들이 부산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기초단체와 의회에도 적극 참여하자"고 말했다. 덧붙여서 "승자독식의 폐토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했다.

오거돈 동문이 보여준 '통 큰 화합'은 대화와 양보는 소멸되고 시비와 반목으로 쳇바퀴만 돌리는 작금의 정치현실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닐 성싶다. 구호만 요란한 '국민대통합'이 언제쯤 제자리를 찾아갈지 질문을 던지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이상룡/편집주간

사상 첫 졸업 45주년 기념 한마당 열렸다

23회 동기회, 경남 산청 휴롬빌리지, 1백여명 참석

23회 동기회가 동창회 역사상 처음으로 졸업 4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휴롬 회장 강영기 동기가 숙식을 후원한 덕분에, 국회부의장 정갑윤 동기와 국회의원 박대동 동기가 함께 부르는 노래와 사진와 호스트 강영기 동기 부부의 솜씨도 감상하는 등으로 시종 흥겨게 치렀다

서울과 부산에서 동기회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는 23회 동문들이 새로운 이벤트 한마당을 벌였다. 졸업 45년 기념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5년 전 졸업 40주년 행사도 처럼 사무국장 김상영 동문은 "40주년 행사 때 동기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5년 뒤에 한번 더 모이는 게 어떠냐'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히면서 10년 뒤 일흔살이 되었을 때, 40주년에서 만난 친구들을 "모두 다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세월의 무심함'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동창회 역사상 첫 '졸업 45주년' 기념행사를 가질 수 있었던 데는, 프리미엄 생활가전 기업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휴롬의 회장 강영기 동문의 전폭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숙박을 포함한 대규모 행사의 걸림돌인 행사 비용 문제를 강영기 동기가 일거에 해결해 준 것이다. 경남 산청군 금서면 신아리에 있는 휴

롬 빌리지 인재개발원을 행사 장소로 제공한 것. 휴롬 빌리지는 지난 6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참가자 합숙 장소로 사용될 만큼 전국적인 명소로 알려져 있다.

9월 27일 오전 서울교대역에서 전세버스로 출발한 서울 동기들은 오후 2시경 산청읍내에서 부산 동기들과 합류해 당구대회팀과 동의보감촌 관광팀으로 나뉘어 행사 일정에 돌입했다. 산청읍내 당구장에서 벌어진 당구경부전에는 모두 26명이 참가했는데 단체전과 개인전을 서울팀이 휩쓸었다. 개인전 1위는 유석산 동문이 차지했고, 김영복, 최재영 동문이 2, 3위에 올랐다. 당구대회가 열리는 동안 나머지 동기들과 '여학생'들은 한방 약재의 메카로 각광받는 산청 동의보감촌을 관람하고 '지리산 정기'도 듬뿍 받았다.

뷔페식으로 차려진 만찬을 즐긴 자리에서는 서울 동기들이 특별히 요청한 산성막걸리 100병과 소주 200병을 모두 처리하고 숙소 안에 설치된 노래방 3곳에서 밤늦게까지 '음주가무'에 몰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부의장 정갑윤 동문과 국회의원 박대동 동문이 참석해 동기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김영기 휴롬 회장 부부도 나와 노래 솜씨를 자랑했다.

이튿날 유의태약수터와 가락국 구형왕릉을 둘러본 일행은 경호강변의 민물 매운탕 식당에서 메기매운탕으로 점심식사를 함께한 다음 짧은 만남의 아쉬움을 남기고 각각 서울과 부산행 버스에 올랐다. 서울 동기들은 귀경길에 아산 현충사를 참배하고 삽교호에서 푸짐한 해산물로 저녁식사를 나누었다.

NEWS 동기회·동호회

재경 16회 동기회 가을야유회

지난 9월 27일 50여명의 동기와 부인들이 모인 가운데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동구릉(태조 이성계의 능인 건원릉을 비롯하여 9기의 능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에서 가을야유회를 개최하였다. 뒤풀이 저녁식사에는 부산동기회에서 가을전어 50인분을 공수했다.

29회 전국동기바둑대회

전국동기바둑대회를 지난 7월 20일 서면 푸른기원에서 개최하였다. 한편 동기회는 오는 10월9일 동래 메가마트 후문 JP당구장에서 전국동기당구대회를 가지기로 했다.

33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박태종

지난 7월 25일 40여명의 동기들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가 열렸다. 신임회장에는 박태종 동기가 선임됐다.

김해지역동창회, 백두산 오르다

김해지역동창회는 회장 이상운(23회) 동문을 비롯하여 동문 및 가족 20여명은 지난 9월 12일부터 5박 6일간, 단동 백두산 압록강 단동의 일정으로 백두산 일원에서 고구려 역사탐방의 여행을 다녀왔다. 한편 동창회는 중국 단동에서 차기회장 선임건을 다루어 조광제 25회, 황건주류 부사장) 수석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대구지역동창회, 영도다리 관광

지난 3월 30일 20여명의 동문들이 부산을 방문하여 영도다리를 구경했고, 송도 암남

공원 올레길을 탐방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이치영(15회) 동문이 대전 계룡산 자연사박물관에 화석을 기증해 전시관 개관을 축하하는 자리도 있었다. 회장:허규판(20회, 삼성산업 대표이사 회장)

중부산지역동창회 가을산행

지난 9월 21일 임철호(24회) 회장을 비롯해 회원과 가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읍 어린이대공원 일원에서 제3차 중부산지역산악회 산행을 가졌다.

천안아산 동창회, 허범도 회장과 회동

지난 9월 16일 천안시 신부동 소재 '고

전재호 재경회장, 미주 동문 만나

파이낸셜뉴스 업무 출장중, LA, 하와이동창회 방문

파이낸셜뉴스 출사 취석차 미국을 방문한 전재호 재경회장이 LA와 하와이에서 미주 동문들을 만나 격려했다. 사진은 LA지역 동문들과 만찬을 가진 모습이다. 오른쪽 세 번째가 전재호 회장.

전재호 재경동창회장이 하와이와 LA 지역 동문들을 찾아 동창회와 모교 소식을 전하고 미주 동문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해 재미 동문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

전재호 회장은 지난 8월 12일, 미국 남가주지역동창회 동문 10여명과 만나 재미 동문들의 근황을 묻고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재미 동문들은 "바쁜 일정을 조개어 방문해 주어 무어라 감사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모교와 고국의 동문들 소식에 목말라하는 우리들에게 동창회장의 예방만큼 큰 선물은 없다"고 환영했다. 남가주지역에는 한때 250명 넘는 동문들이 활동했으나 점차 그 수효가 줄어들고 있다고 현지 동문들이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회장인 전재호 동문은 하와이대 경영대학원에서 한미재무학회와 공동 주최한 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해 개막 연설을 하는 길에 하와이 동문들과도 만나 회포를 풀었다. 하와이 지역에는 이제 정계성(7회) 이용진(15회) 박종원(22회) 동문 3명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풍"에서 허범도 본부동창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가졌다. 회장:김창호(22회,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입관외과 과장) 사무국장:윤석천(29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해운대지역동창회 정기모임

지난 9월 25일 해운대 신시가지 '예담'에서 회원 50여명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가졌다. 회장:김두섭(31회, 김내과 원장)

제46회 동창회장기 기별 야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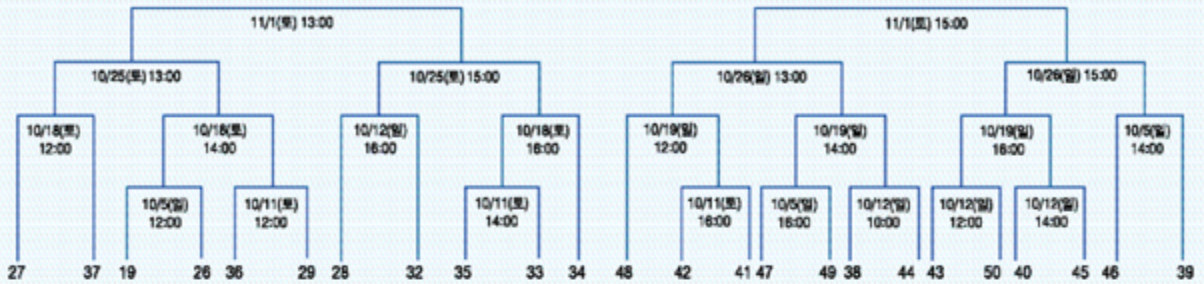
• 입장식 : 10월 5일 (일) 오전 11시 경남고 운동장
(우천시 : 체육관)

• 폐회식 : 11월 1일 (토) 오후 5시 경남고 운동장

1. 출전팀 구성
① 연합팀 : 14회 ~ 19회로 구성(A팀-홀수기수, B팀-짝수기수)
② 장년부 : 24회 ~ 37회
③ 청년부 : 38회 ~ 50회
2. 입장식 후 용마가족 이벤트 행사
3. 참가동문 기념품 제공

회장기쟁탈 제46회 기별야구대회 대진표

· 폐회식 : 11/1(토)오후 5시



용마산악회, 133차 정기산행

지난 9월 14일 2014년 제3차(자체133차) 정기산행을 밀양시와 청도군에 인접한 가지산에서 회원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기산행을 가졌다. 다음 산행은 12월 동백주동창회장기등반대회로 치를 계획이다. 회장:박성철(29회, 법무법인 정인 대표변호사)

우리들의 만남, 경부 집행부 회동

사회 여러 부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선배 동문 모임인 '우리들의 만남'이 지난 9월 18일 만탁동 '수정횟집'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부산MBC 상무 최영식(29회) 동문이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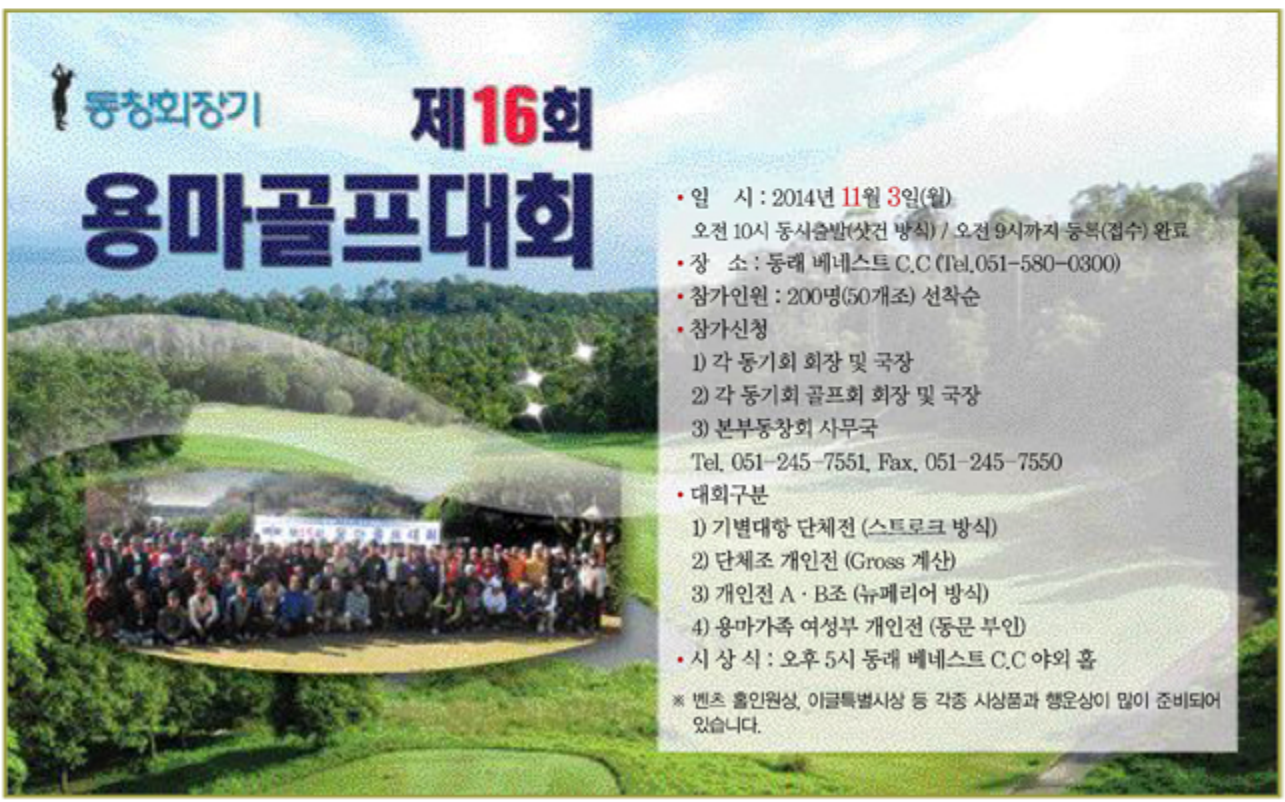
한편 우리들의 만남 서울(회장 구본홍, 21회)과 부산(회장 박창호, 24회)은 지난 8월14일 부산 수정횟집에서 비공식 회장단 모임을 갖고 단합과 우의를 다졌다. 서울에서 구본홍 회장을 비롯해 우리들 만남의 창립 산파역인 김경희(9회) 재경고문, 성병원 이상택(13회) 이사장, 이환균(14회)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승무(26회) 서울진명여고 교장, 박영안(25회) 태영상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부산에서는 박 회장과 백철영(28회) 부회장, 김진호(42회) 부총무가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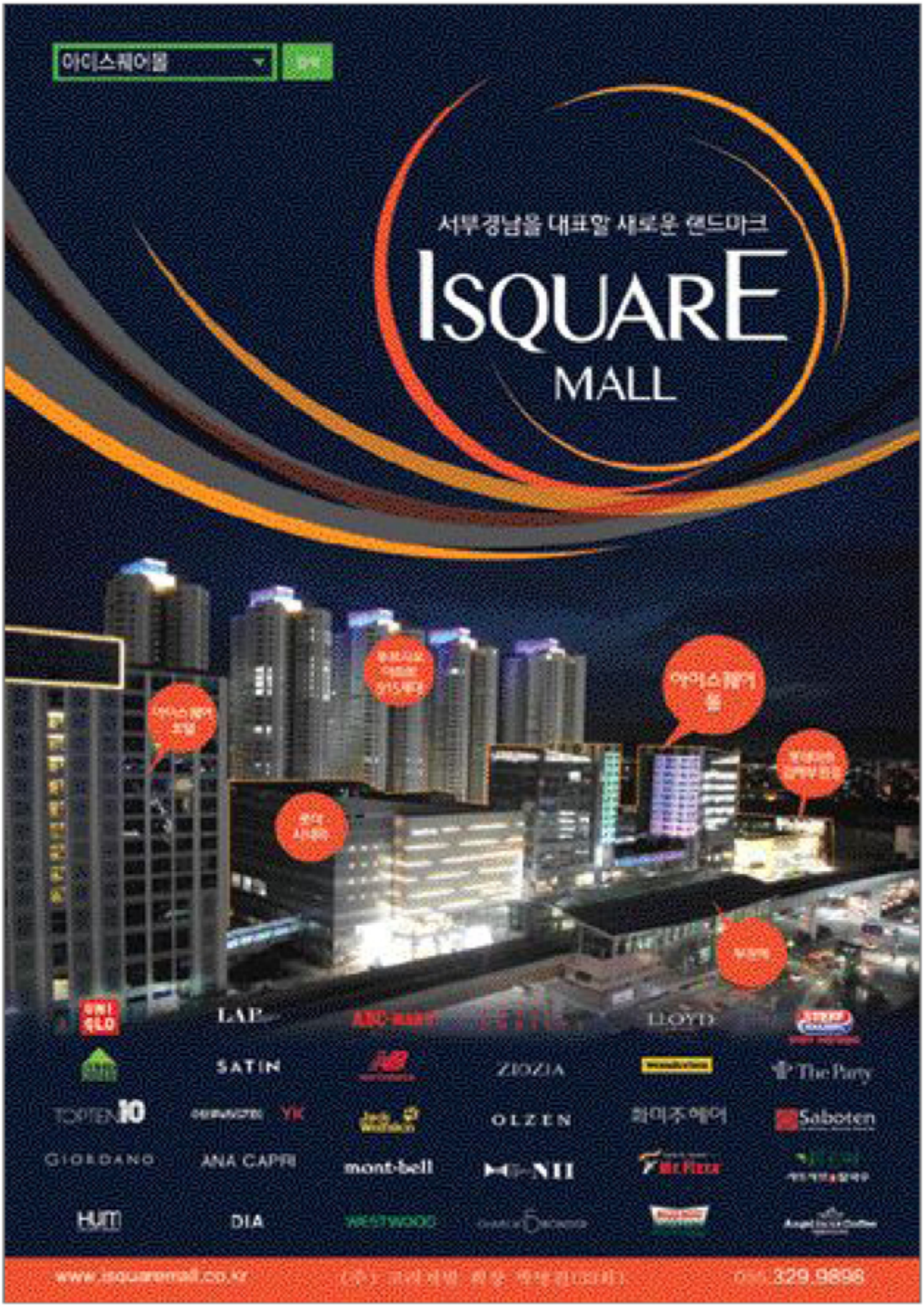
이날 모임에는 서병수(25회) 부산시장이 참석해 우리들 만남의 활성화를 기원했다. 서병수 동문은 지방선거 기간 동안 동문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노정되었던 갈등을 말끔히 씻고 동문회를 중심으로 단합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구 회장과 김 고문 등 서울 우리들 만남 일행은 부산 임원진과 골프 회동을 가진데 이어, 15일에는 요트 항해를 즐기고 상경했다.

후라회, LG 이천구장에서 경부전

24회 동기 야구동호회인 '후라회'는 10월9일 경기도 이천에 들어선 LG챔피온스파크 야구장에서 '후라회 가을야구'를 즐겼다. 경부전으로 펼친 이날 시합에서 서울팀이 11:10으로 부산팀을 눌렀다. 또 후라회 부속으로 창설된 여자야구팀 'LG DIOS Hurrah'와도 친선경기를 가졌다(다음호에 소개). 경기 후에는 부산에서 공수한 생선회 등으로 단합회식을 가졌다.




아이스퀘어몰
서부경남을 대표할 새로운 랜드마크
ISQUARE
MALL
LAP
LLOYD
SATIN
ZIOZIA
The Party
TOSTEN 10
YK
OLZEN
Saboten
GIORDANO
ANA CAPRI
mont-bell
HUIT
DIA
www.isquaremall.co.kr
329.9898

어디서 무엇을?

<5회> △**진도영**=주소 이전. 부산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12로 92. 엘크루블루오션 C3 502동 1003호

<13회> △**강영주**=9월 22일 모친상, 안양샘병원

<16회> △**김길정**=사하드림 합창단원. 지난 9월19일(금) 저녁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창단연주회에 동기 친구들을 초청, 저녁식사까지 융숭히 대접. 친구들은 물론 관람객들로부터도 뜨거운 열광의 박수를 받은 수준급 공연이었다고 모두들 격찬. △**김영부**=7월 18일부터 한달간 부산시립미술관에서 <부산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특선작 전시. 8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대한민국 서도대전> 삼체상(특선3개) 전시. △**김태수**=볼륨한 몸을 이끌고도 쉼 없이 운동하며 자주 동기회 사무실에 나와 친구들과 저녁식사도 하곤 하였는데, 직장암과 S자 결장암으로 병원과 자택을 오가며 투병중. 쾌유를 빕니다. 010-8521-0072 △**손송방**=일특산악회장. 지난 7월 7일 저녁 보수동 용광식당에서 동기회 발전과 상호 친목을 위한 저녁 만찬을 제공. 당일 모임에는 26명의 친구들이 참석하였는데, 마침 서울에서 내려온 양화운 동기도 참석하여 모임이 더욱 화기애애. △**정우광**=의지의 양산 사나이. 3년 전에 양산에서 의성까지 3박 4일간 종주한 후, 지난 6월 17일~25일(8박 9일) 의성에서 출발하여 강원도 고성까지 650km의 나홀로 1인 종주 국토대장정 완수.

<17회> △**권원달**=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64 롯데캐슬 102동 603호 △**김병문**=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445-3 벤스타 2동 603호

<18회> △**강종식**=10월 5일 차남 결혼, 보테가마지오 로 스타뇨 채플 △**노성현**=10월 18일 장남 결혼, 대전 The BMK 컨벤션 △**서부원**=9월20일 장녀 결혼, 워싱턴 D.C 베드레헴 루스탄교회

<19회> △**남병근**=8월 31일 딸 결혼, 포스코센터

<20회> △故 **권훈칠**=서양 화가. 故 김근준 고문 사위. 5월 22일~8월 17일 유고전 '풍경에 담긴 미학'. 용두산미술전시관 △**김종민**=7월 20일 부친상, 부산의료원 △**김홍직**=7월 26일 차남 결혼, JW메리어트 △**박기상**=9월 21일 차남 결혼, 서울 누벨바그 웨딩 △**신철수**=8월 30일 장남 결혼, 신사동 소망교회 △**이명기**=7월 12일 빙모상, 해운대 백병원 △**정성욱**=9월 23일 모친상, 분당 제생병원

<21회> △**조호제**=7월 12일 빙모상

<22회> △**김문무**=10월 4일 차남 결혼, 프리미어 웨딩 상록 △**전재수**=8월 31일 장녀 결혼, 아펠가모 잠실점

<23회> △故 **김지창**=9월 27일 딸 결혼, 우리은행 본점 △**김 현**=9월 21일 아들 결혼, 김해 아이스퀘어 호텔 △**박원기**=8월 25일 부친상, 임원봉 삼성의료원 △**방경부**=8월 15일 모친상, 침례병원 △**안범두**=9월 27일 자녀 결혼, 온천장 농심호텔 △**이경우**=9월 28일 딸 결혼, 더 바인 웨딩홀 △**이동길**=7월 31일 모친상, 강남성모병원 △**이병찬**=9월 15일 부친상, 부산보훈병원장례식장 △**정순구**=9월 23일 장남 결혼, 서울 예화동성당 △**정희원**=8월 19일 모친상, 해운대 백병원 △**하연욱**=10월 18일 장남 결혼, 공군회관

<24회> △**김도인**=10월 5일 차남 결혼, 호텔아쿠아펠리스 △**변용준**=10월 12일 차녀 결혼,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 △**손세영**=7월 24일 모친상, 동의의료원 △**신병식**=10월 25일 딸 결혼, 압구정성당 △**이대영**=10월 4일 딸 결혼, 역삼동성당 △**장한종**=9월 16일 장모상, 인창병원 △**최명진**=8월 12일 모친상, 해운대 성가정성당 △**최진우**=8월 23일 장남 결혼, 아펠가모 반포지점

<25회> △**김익수**=8월 30일 장녀 결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 △**김종태**=8월 18일 모친상, 여주 고려병원 △**박진상**=8월 17일 장녀 결혼, 농심호텔 △**윤종렬**=10월 4일 장남 결혼, 네이버 그린팩토리

<26회> △**김두영**=8월 30일 장녀 결혼, 대치동 벨라지움 △**김민철**=8월 23일 모친상, 서호병원 △**박판기**=8월 26일 모친상, 수요양병원 △**손영수**=8월 31일 차녀 결혼, 노보텔 엠버스더 부산 △**이영덕**=8월 10일 빙모상, 고려대 구로병원 △**정종훈**=9월 20일 장남 결혼, 서울 리츠칼튼호텔 △**최성수**=9월 17일 빙모상, 원자력병원

<27회> △**김경종**=8월 23일 장녀 결혼, 갤러리아 포레 LL △**김민기**=8월 30일 차녀 결혼, 서울 플라자호텔 △**김양화**=8월 23일 장남 결혼, 국민연금 W웨딩 △**박상훈**=7월 11일 모친상, 조은강안병원 △**반정열**=10월 5일 차녀 결혼, 해운대 그린나레 △**신용도**=7월 18일 장인상, 서울보훈병원 △**안중식**=9월 21일 장남 결혼, 더 베일리하우스 △**윤종묵**=10월 11일 아들 결혼, 종로성당 △**정정길**=8월 24일 장모상, 해운대백병원

<28회> △**구자원**=8월 28일 부친상, 서울아산병원 △**김민규**=9월 27일 차녀 결혼, 서울 서문교회 △**김양태**=「꽃마름」 개업.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714 (051-262-2500) △**김재훈**=9월 9일 모친상, 강남성모병원 △**김준배**=9월 28일 장녀 결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나승대**=9월 16일 부친상, 고려대 구로병원 △**노춘홍**=10월 19일 장남 결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박형근**=8월 23일 장녀 결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송봉헌**=9월19일 모친상, 해운대 백병원 △**이진희**=9월13일 차녀 결혼, 강남웨딩컨벤션 △**임상규**=9월 27일 장녀 결혼, 서울대 연구공원 △**최연욱**=9월 9일 부친상, 동아대병원 △**허대석**=10월 4일 장녀 결혼, 논현2동성당

<29회> △**김종운**=8월 4일 모친상, 원주기독병원 △**김종진**=7월 20일 부친상, 부산의료원 △**문영헌**=8월 25일 부친상, 해운대 백병원 △**박경환**=9월 12일 부친상, 한중장례식장 △**박춘도**=10월 3일 장남 결혼, 창원 웨딩K △**백민호**=9월 28일 장녀 결혼, 수원 제이마리스 △**신현수**=7월 10일 빙부상, 한림대 성심병원 △**어진우**=단국대 광대학장 취임 △**오경호**=「원산면옥」 확장 이전. 부산시 해운대 중동 1775-7. 로데로 아울렛 (010-9641-2486) △**유성기**=8월30일 모친상, 강남성모병원 △**이수호**=7월 26일 빙부상, 신촌세브란스 △**이제한**=8월 3일 장녀 결혼, 울산 롯데호텔 △**이준환**=9월 27일 장남 결혼, 이기대성당 △**전진호**=인제대 보건대학원장 취임 △**정대현**=8월 25일 모친상, 서울 아산병원 △**주정호**=9월 20일 장녀 결혼, 엠타워

<30회> △**김동욱**=8월 10일 모친상, 부산의료원 △**김명수**=9월 14일 장남 결혼, 서울대 호암회관 △**김백수**=8월 13일 모친상, 부산의료원 △**김영호**=7월 28일 모친상, 분당 제생병원 △**김용한**=9월 25일 차남 결혼, 서면 롯데호텔 △**김치영**=8월 8일 모친상, 조은강안병원 △**김현태**=부산대 국제학박사 학위 취득 △**박광호**=10월 11일 장녀 결혼, 육5동성당 △**송한식**=10월 18일 장남 결혼, 노보텔 엠베서더호텔 △**송홍익**=8월 26일 부친상, 동작동 국립묘지 △**심풍수**=8월 5일 모친상, 해운대 백병원 △**오성훈**=9월 27일 장녀 결혼, 서울 그랜드 엠버서더호텔 △**이민영**=9월 24일 부친상, 부산 침례병원 △**이상정**=7월 12일 모친상, 해운대 백병원 △**최금석**=9월 27일 장녀 결혼, 해군회관 W웨딩홀

<31회> △**강부원**=8월 5일 부친상, 통영 숭례관 △**김종권**=9월 10일 모친상, 서호병원 △**김종호**=8월 9일 장녀 결혼, 대구 범어교회 △**유영준**=9월 11일 모친상, 인창병원 △**최부영**=대전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교장 취임 △**최재호**=8월16일 빙모상, 조은강안병원

<32회> △**김상범**=8월 31일 아들 결혼, 카이스트 집문술홀 △**박종우**=9월 14일 빙부상, 성남 중앙병원 △**이창국**=9월 21일 장녀 결혼, 서울 웨스턴팸리스

<33회> △**김진서**=8월 31일 모친상, 부산의료원 △**박경호**=7월 5일 딸 결혼, 울산 오토벨리예식장 △**배성수**=7월 16일 모친상, 영도구민 장례식장 △**황명상**=10월 19일 장녀 결혼, 대전 vip웨딩홀

<34회> △**김동욱**=9월 3일 모친상, 부산백병원 △**박영호**=7월 30일 모친상, 동래 대동병원 △**정만호**=9월 22일 모친상, 고정 법일병원

<35회> △**이동형**=7월 19일 빙모상, 범천동 시민장례식장 △**최상우**=7월 16일 부친상, 광안리 한서병원

<37회> △**김정호**=7월 17일 빙모상, 울산 동강병원 △**박찬영**=9월 16일 모친상, 침례병원 △**홍석원**=9월 18일 부친상, 한중프라임장례식장

<38회> △**권효근**=개업. 싱가폴 유니버셜 스튜디오 內 「인사동코리아타운」 △**김재성**=9월 8일 빙모상, 여의도 성모병원 △**신동훈**=개업. (㈜모아여행사노랑풍선 대리점) (051-807-5566)

<40회> △**손옥명**=9월 3일 부친상, 김해전문장례식장 △**이현호**=한국은행 국제국(3급) △**정경두**=한국은행 인재개발원(3급)

<41회> △**김범성**=8월 12일 빙부상, 인창병원 △**김찬원**=9월 15일 부친상, 범천동 시민장례식장

<44회> △**설상욱**=연제경찰서 근무. 10월 3일 이화웨딩홀에서 화촉

<54회> △**정준섭**=8월 1일 딸 출산

뛰어난 전략은 수준높은 Creative로 빛을 발합니다.
• 광고기획 및 편집, 일본어 편집 전문 • 마케팅리서치, 매체대행, SP, CI, BI, PI
• 명함, 소.대봉투각종 서식, 전단, 팜플렛카다록, 리플릿, 브로슈어, 선거홍보물 제작
• 개인 · 동인지 , 시 · 수필집 출판, 자서전 출간 전문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44번길 14(부평동3가)T. 051.245.2337 F. 051.245.2334
대표 강 성 옥(37회)
샤인텔 Shine Tell

승효상 동문, 모교 재학생들에게 '건축학 특강'

신학공부 좌절된 건축가의 이야기

최근 서울시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승효상 동문은 모교 재학 시절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건축학을 택했다고 말했다.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집안과 주위의 반대로 좌절하고 힘들어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럴 즈음에 평소 좋아하던 누님이 건축을 공부하면 어떻겠느냐고 권유해서 건축학과로 들어갔다."

'빈자의 미학'으로 건축학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최근에는 '오래된 것은 아름답다'는 화두로 주목을 받는 이로재 대표 승효상(25회) 동문이 모교 재학생 후배들을 위해 특강을 했다.

지난 9월25일 모교 체육관에서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승 동문은 모교 재학 시절에 자신이 겪은 좌절과 방황을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건축가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건축사무소를 '이로재'로 이름 지은 사연을 포함해서 쉽게에 얽힌 뒷이야기를 소개하며, 중국 만리장성 부근 호텔의 클럽하우스를 비롯해 구덕교회, 제주도 추사관, 노무현 대통령 묘역 등 5개 유형의 건축물을 보기로 들어서 건축학과 설계의 세계를 알기 쉽게 강의했다.

특히 서양에서는 건축을 '으뜸가는 학문(architecture)'으로 정의한 것을 일본인들이 '건축'이라고 이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여러 나라의 사례를 소개했다. 승 동문은 자신의 건축 철학은 "자신을 경계 밖으로 내던져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나타내는 것이 첫째이고,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사는 법을 배워 그들이 살 집을 짓는 것이 두 번째 태도"라고 밝혔다.

모교 특강을 마친 승효상 동문은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NEWS 동문동정

유흥수(11회) 주일대사 부임

유흥수 전 국회의원이 지난 9월 26일 아키히토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정식으로 주일대사로 부임하였다.

송규정(16회) 원하이텍 코스닥 상장

중견 철강기업인 (주)원스틸 회장 송규정 동문이 지난 7월 25일 (주)원하이텍을 코스닥 상장시켰다. 이 회사는 기존 인스팜의 강건재 사업부문의 인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로 건설 현장에 쓰이는 데크플레이트(건설 현장의 함판 거푸집을 대체할 수 있는 금속 구조재)가 주력 제품이다. 잠실 제2롯데월드 건물에도 이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송 동문은 "앞선 기술력과 회사 상장을 통한 자료를 발판삼아 '하이테크 건자재 조합 그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곽동원(25회)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동원 동문이 10월 6일자로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임기 3년)되었다. 곽 동문은 성균관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30여년간 현대산업개발에서 근무하고 계열사인 아이엔콘스(주) 사장과 상임고문 등을 거쳤다. 곽 동문은 도시개발과 공영개발사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어 현재 부산도시공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를 비롯, 해운대리조트,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등의 대형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세(26회) 법률방송 대표이사

박원세 동문이 지난 8월 26일 법률방송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박 동문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제일제강, 삼성그룹 비서실, 뮤직네트워크 대표이사, CJ미디어 대표이사, 한국케이블TV협회 상근부회장, 동성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했다.

피종호(26회) 한양대 학술정보관장

피종호 동문이 한양대 학술정보관장에 임명됐다. 피 동문은 서울대 졸업 후 독일 뮌른대학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독문에학, 미디어사, 영화이론, 대중문화론, 뉴미디어이론 등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한양대 독문과 교수다.

김원용(27회)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김원용 동문이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에 취임했다. 김 동문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텍사스주립대에서 언론학박사학위를 받은 후,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이화여대 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지냈다.

김병추(27회) 부산경제진흥원장

김병추 동문이 부산경제진흥원장에 취임했다. 김 동문은 서강대 철학과와 동대학원 금융학과를 졸업한 뒤, 금호타이어(주) 대표이사와 중국총괄사장, 대우인터내셔널 싱가포르 법인장 등을 역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이다.

박영빈(27회) 동성홀딩스 부회장

박영빈 동문이 동성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박 동문은 장기신용은행 전신인 한미은행 런던지점장, 경남은행 수석부행장을 지낸 후,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경남은행 은행장으로 재직했다.

안병직(28회) 서울대 기초교육원장

안병직 동문이 서울대 기초교육원장에 취임했다. 안 동문은 1991년 독일 비엘레펠트대학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3년 서울대에 부임하여 서양사학과 장을 지낸 바 있다.

전진호(29회)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전진호 동문이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에 취임했다. 전 동문은 1985년 인제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전임강사로 출발하여 동 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정기룡(30회) 부산시 경제특보

정기룡 동문이 지난 9월 5일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에 취임했다. 정 동문은 부산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플로리다대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남은행 지역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동남종합연구원 이사 겸 기획실장, 부산시 정책개발심장, 센텀시티 상무이사, 엘시티 사장 등을 지냈다.

최영식(30회)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소장

최영식 동문이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소장으로 영전했다. 최 동문은 한양대 의대를 졸업한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군의관을 마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들어가 최근까지 법의학부장을 지냈다.

부 음

▷**장재수**(6회)=지난 8월10일 온종합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허민영**(14회)=부산요양병원장을 역임한 허민영 동문이 지난 8월7일 마산의료원에서 별세했다.

▷**김만흥**(17회) 전 평화유지 대표 별세

평화유지공업 대표이사와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한 김만흥 동문이 지난 9월26일 강남성모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 김만흥 동문은 1945년 부산에서 태어나 연세대를 졸업했다.

▷**임남택**(17회)=지난 9월7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다.

▷**이상영**(18회)=뮝립요양병원장을 지낸 이상영 동문이 지난 8월3일 부산의료원에서 별세했다.

▷**남경진**(27회) 전 동아대병원장 별세

동아대의료원장을 지낸 남경진 동문이 지난 8월24일 급환으로 별세했다. 고 남경진 동문은 1956년 8월 부산에서 태어나 경남중, 동아고를 졸업하고 부산대 의대를 나왔다. 연세대에서 석사, 부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동아대 영상의학과 교수에 임용되어 진료부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지난 2009년 동아대의료원장에 취임했다.

▷**마창수**(30회) 전 동구부청장 별세

부산시 동구부구청장을 지낸 마창수 동문이 지난 9월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 마창수 동문은 서울시립대를 졸업하고 서울시 7급 공채를 통해 관직에 입문하여 부산시 노사정책과장, 재난안전과장, 교통정책과장을 거쳐 동구청 부구청장으로 재직했다.

당당한 풍모에 소탈했던 마 동문은 부산시재직동문회인 용마회를 이끄는 등으로 동문후배사에 열성적을 참여해 용마가족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었다. 부음을 전해들은 많은 용마가족들이 오열을 터뜨렸다.

▷**김상태**(41회)=지난 9월18일 동아대병원에서 급환으로 별세했다.

최인근(30회) 대통령상 수상

동의과학대 교학처장인 최인근 동문이 지난 7월22일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교원에 대한 정부포상에서 대학자체 자격인증제개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임성빈(38회) 국세청 부이사관

임성빈 동문이 국세청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임 동문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7회에 합격,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수원세무서장, 국세청 법무과장을 지냈고 현재는 기획 재정담당관을 맡고 있다.

무쇠팔 전설 이을 첫 주인공은?

최동원 동문 3주기 추도식, 최동원상 곧 발표

한국판 사이영상으로 불리는 '최동원상'의 첫 주인공이 오는 11월11일에 밝혀진다. 3주기 추도식 모습(위)과 간담회를 가진 최동원상 선정위원들(아래)

한국야구의 전설, 무쇠팔 최동원 3주기 추도식이 지난 9월14일, 부산 사직야구장 광장 '무쇠팔 최동원 동상' 앞에서 엄수되었다.

이날 추모식에는 최동원 동문의 어머니 김정자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서병수 부산시장, 권기우 최동원기념사업회 이사장 그리고 그를 그리워하는 야구팬들이 참석했다. 최동원 투수의 팬이었다고 밝힌 서병수 동문은 김정자 여사의 건강을 물으며 위로하고, 권기우 이사장에게 최동원상 시상 등 기념사업 추진 현황을 묻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롯데 자이언츠 야구단은 이날 사직야구장에서 벌어진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 앞서 최동원 투수 추모 동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방영해 야구팬들의 추억을 환기시켰다.

한편, 기념사업회는 9월4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최동원상' 선정위원 간담회를 열고 어우홍 전 모교 야구감독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어우홍 감독은 롯데 자이언츠 감독도 역임했다.

어우홍 위원장은 "대한민국 최고 투수의 영웅적 활약상을 기리고자 최동원상이 제정되어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쁘다"고 말하고 "공정한 심사로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투수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정위원회는 어 위원장을 포함해 김성근 전 고양 원더스 감독, 김인식 KBO 규칙위원장, 허구연 야구해설위원, 양상문 LG 트윈스 감독, 선동열 기아 타이거스 감독, 천일평 OSEN 편집인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판 사이영상을 모토로 하는 최동원상은 해마다 프로야구와 국제대회에서 최고로 활약한 국내 투수에게 수여하며 상금은 2천만원이다. 최동원상의 첫 주인공은, 최 동문의 배번(11)에 맞춰 오는 11월11일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

아버지와 아들, 동백섬에서 만나다

이용흠의 '누리마루'와 이호범의 'The Bay'

해운대가 오랜만에 찬사를 보내는 이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5월에 문을 연, 부산 최대 복합 마리나 시설 'The Bay 101'의 등장 때문이다.

동백섬 서쪽 해변 매립지에 들어선 이곳은 피서철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입소문을 타고 해운대의 새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이국적인 야간 풍경은 전국적인 소문을 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맞은편 마린시티 주변의 초고층 아파트에 불이 들어오면 노천카페에서 즐기는 야경은 누리마루와 함께 동백섬의 명품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누리마루'와 'The Bay 101'은 '동백섬'이라는 지리적 동일 평면성 말고도 특별한 인연으로 얽혀 있다. 누리마루 설계자는 이용흠(19회) 본부동창회 고문이고, The Bay 101 설계자는 이호범 일신설계 대표이다. 금방 눈치 채겠지만,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다. The Bay 101은 그런 건축적 혈연으로 태어난 셈이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존경하는 스승이고, 아버지에게 아들을 대견스러운 제자이다.

이용흠 고문은 차마 내놓고 '아들자랑'은 할 수 없었는지, "The Bay의 풍광도 좋지만, 음식맛도 일품"이라고 애둘러 말하지만, 아들과 그 아들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는 못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들러서 맥주 한 잔 마셔 보라고 '열심히' 권하지만 말이다. 그럼 아들을 어떨까?

"아버지는 건축물과 자식은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계한 건축물을 보면 시집보낸 딸을 보는 아버지 심정 같다는 것이지요. 건축은 공학이 아니라 인문학에 가깝다는 게 지론입니다. 또 조물주의 창조 영역과 연결해서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강의실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다고 할까요?"

이호범 대표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시카고에 있는 De Stefano &Partners에서 활동하다 지난 2008년에 귀국했다.

이호범(위) 대표는 강의실에서 배운 것보다 아버지한테서 배운 게 더 많다고 했다. 이호범 대표가 설계한 The Bay 101(아래)

축 28회 동기회 졸업 40주년 기념 행사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8일(토)

오후 3시 : 경남고

오후 4시 : 경남중

오후 7시 : 해운대 그랜드호텔 그랜드 볼룸

졸업40주년기념 행사 준비위원장 이만수 / 본부 동기회장 구영소 / 재경 동기회장 김용원

용마 CEO/Mock up의 정상, 코스모 대표 박형규(43회) 동문

"모형은 실물실현 가능성의 가늠자"

거제도 지세포 해안에, 마치 거대한 상륙함이 금방 바다로 나아갈 태세로, 들어선 거제조선해양문화관은 조선도시 거제시의 명물이다. 이곳 문화관의 압권은 선박역사관을 장식하는 모형 선박들이다. 웬만한 부잣집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명품들이 즐비하다. 아이들에게 대양을 항해하는 포부를 심어 주기에 안성맞춤이다.

박형규 동문도 그런 모형 선박을 위시해서 장갑차와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모형(Mock up)을 만든다. 그러나 그가 만드는 모형물은 결코 장식물에 그치는 호사가들의 소장품 따위가 아니다. 그가 만드는 모형물은 장차 우리 앞에 등장할지도 모를 공학-기술 발전의 결과물, 곧 새롭고도 경이로운 존재의 맞닿아 있다.

"이를테면, 새로운 비행기를 제작한다고 하면, 막대한 개발비가 소요됩니다. 쉽사리 엄두를 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작게 만들어 보는 것이죠. 새로운 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원초적인 요청과 실물 실현이라는 거대한 프레임 사이의 중간기술을 개발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그가 만드는 모형 선박이 조선해양문화관에 전시된 그것과 존재 가치가 전혀 다른 것임을 눈치 챘을 터이다. 모형이 모방을 위함으로 하되, 실현 가능성은 공학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내 굴지의 복업 사업체로 꼽히는 '코스모'는, 그래서 '작은 거인'이라 불러도 좋다.

모형 제작이라는 특이한 사안에 뛰어든 박형규 동문의 비전은 우리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동남아에도 전수하는 것이다. 부산대에 입학해 덕형회-동백회 신입생환영회에서 처음 만난 아내 김수정(왼쪽 사진) 씨는 배우자이자 동업자로서 박 동문의 포부를 실현시킬 열쇠를 쥐고 있다.

덕형-동백회에서 만난 아내는 동업자

연구직 4명, 제작직 10명을 포함해 18명을 거느리는 코스모는 21세기 창조와 신지식인의 견인차 역할을 모토로 하고 있다. 연매출 15억원, 수출 10만불로 성공적인 벤처창업 1세대로 뽑기는 한다.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 1차 협력업체 등록, 군납업체 등록 획득,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중소기업 융복합 연구과제(해양굉 세일 요트) 추선대상 등의 연혁을 살펴보면 기술혁신형 전문가 집단임에는 틀림없다. 물론 박 동문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치에는 한참 뒤처져 있다.

그의 당면 목표는 세계 유수의 복합형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합'은 코스모가 엔지니어링 복업 제작에 그치지 않고 해양레저산업에 새 바람을 몰고 올 '새 것들'을 개발, 제작하는 것을 뜻한다. 이미 무인 구명정 제작기술을 개발했고 윈드서핑 마스트도 개발했다. 카이트 추진형 20미트급 레저보트도 개발했고, 휴대용 접이식 보트와 밀터카약도 제작을 눈앞에 두고 있다. 창조경제 실현 및 기술혁신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되었다. 남은 과제는 소요자금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런데,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그가 조선해양 분야에도 괄목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데는 그의 아내 김수정 씨가 등장한다. 부산대 덕형회와 동백회 신입생 환영 모임에서 박 동문과 처음 만난 김수정 씨는 조선공학 석사학위 보유자로서 코스모 기술력을 상징한다. 대학 삼성연구소에서 일할 때 기계연구원에 있던 박 동문과 짝을 맺었다.

호방하고 진취적인 남편과 섬세하고 치밀한 아내가 연출하는 '환상의 콤비'는 성공할까? 답은 "오케이!"이다. 선박기술에 항공역학을 접목해 보자던 두 사람의 만남이 찰떡궁합처럼 들어맞았으므로 코스모의 항해는 바야흐로 순풍을 만난 셈이다.

퇴직금, 전세보증금 털어 1억원에 창업

박 동문은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도 받았다. 대덕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에 들어가 연구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그러나 연구자의 입지는 의욕에 견주어 매우 좁고 또 종속적이었다. 성에 차지 않았다. 2년 만에 기계연구소를 나왔다.

"새로운 미션은 도면을 처음 그리는 엔지니어의 창의성과 실험정신이 기본 밑천입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가리는 결정권은 엔지니어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연구소는 의사 결정권을 갖지 못하지요. 이노베이터(창조자)이냐, 어시스터이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의사결정은 CEO나 정치인이나 권력자가 행사하는 현실을 실감하고 연구기능을 가진 코스모를 창업했다. 15년 전의 일이었다. 몇 푼 되지 않지만, 자신과 아내의 퇴직금, 전세보증금, 거기에다 모천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마련한 대출금 등을 죄다 긁어모아 만든 1억원으로 '벤처사냥'에 나선 것이었다.

교육자 집안에서 성장한 그가 벤처 신화를 좇아 '점글만리' 장정에 나선 것은 이단에 가깝다. 4촌 이내 친족 가운데 교사가 6명이나 된다. 선친 박지선 선생은 모교 30회에서 33회에 이르는 동문들의 영어 스승이고, 모교에 오래 재직한 박지하 선생은 그의 큰아버지이다. 다만, 미래를 내다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의 경영철학은 선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아 보인다.

노후 설계도 완벽한 43회 동기회장

"목업 기술은 독일이 선두를 달리고 일본에 이어 한국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의 기술력은 국내 정상급이라고 자부합니다. 위축된 조선경기 여파가 염려되지만, 3D 애니메이션 분야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지요. 10년 뒤를 내다보고 동남아 지역에 기술지원 사업을 지속할 겁니다."

3D를 이용한 그래픽 애니메이션 분야도 그에게는 블루오션이다.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설계도로 활용되는 애니메이션은 현재 매출의 30%를 점하는데 1편당 제작가가 5천만원에 이른다. 특허출원한 시뮬레이션 선박모형 제작 키트도 응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주요 전략 포인트이다. "언제나 잠들지 않는 코스모는 희망이라는 꿈을 꿉니다"가 그의 캐치 프레이저.

특히, 동남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회 있을 때마다 동남아 지역을 출입하며 기술지원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10년 뒤에 가면 효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자신한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 동남아 어디에서 심켓 즐기며 사는 것을 인생 설계도에 이미 그려놓았다.

우람한 체구에 걸맞게 항상 호방한 박 동문은 3년 전에 43회 동기회를 결집해 동기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석탑에 한번씩 모이는 동기회에는 30~40명이 참석한다. 용마동문들은 "사모님!"으로 일컬어야 하는 어머니 권정창 여사를 모시고, 고교 1학년 딸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거느린, 단란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다.

축소, 또는 미니멀을 먼저 떠올리는 목업(Mock up) 세계에 대한 선입견을 바꿔줄 실례 하나를 소개한다. 코스모는 군 당국의 의뢰로 제작한 장갑차를 실제 크기와 똑같게 제작한 적이 있었다. 실제 크기의 모형 장갑차 속에 조종사들이 직접 들어가 전투 상황에서 능히 작동할 수 있음직 점검할 수 있게끔 제작된 것이다. 전장 8m 크기의 쾌신 장갑차였다. 군사보안상 제작 기적을 그대로 밝힐 수 없지만, 수억원에 이른다는 점만 귀띔해 둔다.

모형은 작은 장난감일 것이라는 편견은 이제 버려야 옳다.

이상룡/편집주간

수능 수험생 후배들을 격려해 주세요!

모교에 교육기부를 하시거나 재정기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동문들께서는 행정실 '학교발전기금 접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능시험을 앞둔 후배들에게 격려의 뜻을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도 행정실로 전화해 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경남고등학교 행정실 Tel.051-250-5105, Fax.051-250-5199

<경남고등학교홈페이지/알린양정/학교운영위원회 제182번 게시물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때 그 시절 이야기 / 한강 이남 최강의 물살, 경남중 수영부 ②

"보고 싶구나, 홍엽아! 부디 저승에서 이 글이나마…"

최 갑 영 (6회, 전 영남일보 논설위원)

수영장 사설이 매우 빈약했던 예전에는 바다가 연습장이고 훈련장이었다. 이 옛 모습의 남항는 경남중학교 수영부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광복 이후 당시의 수영연습(훈련) 과정은 거의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다. 우리 코치들도 일본책을 참고하고 있었다.

1948년 8월, 어느 대회를 한 주일 앞두고 갑자기 원영(遠泳)을 하기로 했다. 자갈치에서 송도 해수욕장까지 헤엄쳐 가는 것이다. 입었던 옷은 1학년 부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준비운동을 마친 뒤 일제히 바다로 뛰어들었다. 모두 자기 주종목으로 수영하되 지치면 자유로이 쉬어가면서 나아갔다.

곧 해경 경비정이 보였고 우리는 오른쪽으로 비켜갔다. 한참을 가니 남항 방파제가 나왔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방파제에 오르도록 주의를 받았으나 아무 일 없었다. 방파제 사이는 물의 흐름이 세었으나 무사히 빠지나갔다. 그러나 파도가 일어 짠물이 목으로 넘어온다.

이윽고 맘껏대해다. 왼쪽에 영도가 보이고 오른쪽에 송도가 코앞에 나와 있다. 앞서가는 자유형 팀이 속도를 조절하며 나아갔다. 수온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러나 이젠 포기할 수가 없다. 배영팀이 가장 힘들어 보였다. 송도를 돌아가니 하얀 물살이 보였고 해수욕 모래사장이 나타났다. 다이빙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많은 인파로 붐비었다.

장장 바닷길 3km, 두 시간 가까이 사투하여 모래사장에 도착했다. 모두 기진맥진이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고 입술은 시퍼렇다. 이를 다닥다닥 소리 내며 덜덜 떨었다. 미리 와서 기다리던 선생님이 반가이 맞이하며 따끈한 생강엿물을 사다 주었다. 너도 나도 한잔씩 마시고 뜨거운 모래사장에 누워 몸을 데우고 녹였다.

이날은 그것으로 연습일과를 마치고 송도에서 해산했다. 마침 나는 집이 송도여서 가장 편한 몸이었고 감천의 김홍엽 선수(6회, 평영)와 남부민동의 최용웅 선수(6회, 자유형)도 집이 가까운 덕을 보았다. 그러나 시내에 사는 선수들, 특히 영도의 주성용 선수(4회, 배영) 등은 귀가하느라 고생했을 것이다. 원영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체육 선생님을 코치에서 퇴출시키다

1948년 8월 말경으로 기억한다. 당시 수영부장이던 이영파(李英坡, 3회) 선배는 코치를 맡은 체육과 김용진 선생님이 자유형은 잘 가르쳤지만 평영과 배영 부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데 대해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평소 그런 소리를 4회 선배들과 나누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잘 모르는 분위기였다.

하루는 구덕운동장 수영장에 우리 전체를 모아놓고 이 선배가 폭탄선언을 했다.

"지금 코치 선생님이 우리를 지도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다른 분으로 갈아야 하겠다!"

"선생님 집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 할 테니 너희들은 그리 알고 나를 따라와 한다!"

우리는 그 당시 이 선배에게 꼼짝도 할 수 없어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했다. 김 선생님의 자택은 가까운 서대신동에 있었다. 자택을 방문하자 선생님 내외분이 반가이 맞아주셨다. 그러나 갑작스런 방문인지라 선생님도 긴장된 눈치였다. 이윽고 이 선배가 말문을 열었다.

"선생님, 우리는 더 이상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영파 선배의 폼발 발언에 김 선생님은 "그래?!" 하고 이내 얼굴이 굳어지더니, 잠시 뒤에 이 선배를 보며 "너의 생각이냐, 모두의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 선배가 "물어 보시지요." 하자 선생님은 우리를 살핀 뒤 대뜸 나에게 "너도 그런가?"라고 묻는다. 순간 나는 당황한 가운데 그만 "예!" 하고 대답했다.

다른 수영부원들도 차례로 "너는, 너는…" "예, 예…" 똑같은 반응이었다. 선생님은 "알겠네…"하고 체념의 한마디를 남겼다. 나는 속으로 한없이 죄스러웠다. 이것이 김 선생님과 우리 수영부 인연의 마지막이다.

그 뒤 우리는 코치를 바꾸었다. 차례로 김기덕 코치와 이봉훈 코치, 두 분이 고맙게도 자원봉사를 자처하며 헌신적으로 우리를 지도했다. 그러나 평영과 배영은 여전히 실력이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김 선생님이 떠난 뒤 9월 대회에서 우리는 경남상고에 우승을 빼앗겼다. 아마 천벌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두고두고 생각하니 그때 김용진 선생님의 심경이 어떠했는지, 참 가슴 아프다. 이영파 선배는 그 뒤 1949년, 6학년 졸업반이라 수영부를 떠났다.

수영부 마지막이던 그날, 6월25일

오늘날에는 연중으로 수영대회가 열리지만 옛날에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6월 말에 첫 대회가 열리고 9월에 끝난다. 1949년 9월 대회를 마지막으로 6학년에 오른 4회 선배들은 수영 선수생활을 마감했다.

이듬해 1950년 첫 대회가 6월 24일 토요일에 열렸다. 당시 우리는 코치가 없었지만 모두 열심히 했다. 선배들이 떠난 종목을 메꾸어 나는 주종목이던 자유형 중 · 장거리에서 단거리로 100m와 200m 종목으로 옮겼다. 다음날인 대회 이틀째가 운명의 6월25일이었다. 이첨에 대회장에 나가보니 본부석 임원들 사이에 38선에서 괴뢰군(북한군이 침범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그때는 본격적인 전쟁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

다른 종목의 선수들의 성적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나는 단거리의 왕자였던 임용신(4회) 선배의 뒤를 이어 단거리 종목을 휩쓸었다. 기록은 시즌 첫 대회라서 좋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 수영 선수생활의 마지막이었던 것이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우리 군(軍)은 후퇴 또 후퇴를 계속했다. 수많은 피난민이 남하했다. 학교 교실은 군에 징발되어 수업이 중단되었고, 수영부원들은 저마다 뿔뿔이 헤어졌다.

너도 나도 학도병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나의 절친한 친구였던, 감천에 살던 수영선수 김홍엽(6회, 평영) 군도 현병으로 참전했다. 그러나 그는 횡성전투에서 아깝게도 전사했다. 방파제에서 수영연습을 마치거나 대회가 끝나면 꼭 함께 집으로 몰아가던 사이였다.

64년 전의 이야기다. 만 17세 어린 나이에 그만 떠난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겁다.

"홍엽아! 보고 싶구나. 부디 저승에서나마 이 글을 읽어 주려무나…."

우리 모교 수영부는 그 이후에도 후배들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여 전통을 이어갔다는 소문을 들었다. 돌이켜보면 감개무량이요, 만감이 교차한다. 오른쪽에 우뚝 솟은 천마산과 원련에 영도를 바라보며 차가운 남부민동 방파제 바닷물을 벗 삼아 수영 연습하느라 우리는 엄마나 고생했던가.

송도의 감천에 집이 있던 나와 홍엽이는 방파제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일은 그만 둔다!"고 서로를 보며 다짐했다. 그러나 다음날 학교를 마치면 우리의 발길은 말없이 또다시 방파제로 향하고 있었다. 우승과 선수권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동창회 회원명부를 들춰보니 이미 고인이 된 당시 수영부 동문들이 여럿 있어 정말 안타깝다. 그때의 그 얼굴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저 명복을 빌 따름이다.

경고 수영부여 영원하라! 모교여 영원하라!!

원로동문들께 부탁드립니다

원로 선배님들의 옛 이야기가 바로 모교의 역사입니다. 기록자료가 극히 미미하여, 현재 준비하고 있는 모교역사 편찬사업은 원로동문들의 증언과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꼭 남겨야 할 사실(史實)을 갖고 계시거나 알고 계신 분은 편집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동창회보 편집주간 이상룡(24회) 010-6243-9856

기고

일체감 확인한 해외문화탐방

경고인으로서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큰몫을 한 해외문화 탐방은 최우철30회 동문이 협찬했다.

통진섬유 회장인 최우철 30회 동기회장의 지원으로 서강태(30회) 교장을 포함한 경남고 교직원 14명은 30회 동기회 전현직 임원 3명(우홍제, 홍인기, 황철민) 류명석(31회) 전 운영위원장과 함께 '자율형 공립고 교육활동에 공이 큰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직원 단합'을 목적으로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베트남 하롱베이, 하노이를 여행하며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해외문화탐방 연수'를 실시하였다.

19일 오전 7시, 연수단 일행 18명은 김해공항 국제선청사에 모두 집합했다. 그러나 탑승하기로 한 베트남항공 421편의 고장으로 출발시각이 오후 7시로 연기되었다. 이 바람에 해외 문화탐방 전에 국내 문화탐방을 먼저 하게 되었다. 김해 클레이아크박물관을 관람하고, 나동강오리알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무사 안전여행을 기원하고 단합을 다졌다.

대한항공 675편으로 밤 12시에 캄보디아 씨엠립에 도착, 퍼시픽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연수일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서강태 교장의 주도로 학교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튿날, 호텔을 출발하여 앙코르톰 유적지로 향했다. 캄보디아의 공항과 도로는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에서 건설한 것이고, 최근에는 의료 봉모지인 캄보디아에 코피카를 비롯한 한국 병원들이 건설되고 있다는 가이드의 이야기에 신장된 국력을 모두 실감하였다. 앙코르와트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야시장에서는 앙코르 맥주도 마시면서 이튿날의 일정을 소화하였다. 앙코르와트 벽면과 기둥에 남아 있는 포탄 흔적과 호텔 입구에 붙어 있는 '총기류 금지, 마약 금지, 수류탄 소지 금지'라는 주의표지판은 내전의 아픈 상처를 알려주고 있었다.

사흘째는 와트만 사원을 방문하여 캄보디아 내전 당시의 참사를 유골과 사진으로 실감하고, 개구리 튀김을 먹으며 롭레 사 호수를 관광하였다. 점심으로 광양냉면을 먹으며 공연도 관람하고 북한에서 온 아가씨들과 기념촬영도 하며 동포의 정을 느끼고, 오후 3시 40분 베트남항공편으로 하노이로 향했다. 캄보디아 여행을 비행기 속에서 정리하며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인 캄보디안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세계 4위라는 사실이 '과연 행복은 무엇인가' 하는 깊은 사색에 빠지게 하였다.

하노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간이식당에서 늦은 저녁식사를 하고, 하롱베이로 향했다. 로터스호텔에 여장을 풀자마자 30회 황철민 총무의 주선으로 '해물포차'라는 식당에서 경고 발전에 대한 토의가 자정을 넘기며 이어졌다. 나흘째 일정은 하이퐁 십팔내를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는 코스였다. 석회동굴을 탐사하고, 밥 마사지도 받으며 호사를 누렸다.

닷새째 일정은 하노이 관광이었다. 호치민박물관을 거쳐 씨클로를 타고 하노이 시내를 관광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영묘와 한기둥 사원을 관광한 후, 수상인형극을 관람하고, 하노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오전 6시 30분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해외문화탐방 연수에서 우리 일행 모두는 경남고 가족이라는 강한 소속감을 느꼈다. 동문은 동문대로, 교직원은 교직원대로, 경고인으로서 학교발전에 밑거름이 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 지면을 빌어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최우철 회장님께 연수단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김 형 욱
(경남고 교사, 1학년 부장)

제2회 용마당구대회

2014년 11월22일(토) 오전 9시
뉴 다빈치 당구클럽
(남포동 SC은행 앞. 070-7337-4505)

※조추점/2014년 11월6일(목) 19시
부평동 '개화' (051-245-6205)

용마당구회장 김도살(22회)
(010-3873-8308)

사무국장 김정수(37회)
(010-2478-1452)

2014년도 회보 구독료 보내주신 동문

*( )는 선납부자 ● 총 2,878명 2014. 9. 25.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본부동창회로부터 제작비 지원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 · 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14년 구독료(년 3만원)을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028-01-032909-1
예금주 : 경남중고동창회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1회(1명) 박명현

3회(17명) 김인조 김희철 노관택 류영볕 문병집 박영희 박인창 박준양 손주석 송두호 윤태윤 이 경 이안규 정규일 하덕모 한준석 황성남

4회(21명) 김경식 김기홍 김용욱 김주호 김희수 박무열 박석만 송호길 양종학 윤옥경 이남규 임영수 장수호 장영만 정상천 정순모 정치근 조성일 조홍제 최갑종(재미) 황갑생

5회(21명) 김균석 김석호 김윤규 김은규 김인택 김진휴 김형대 박장후 박종구 상기중 송두성 유병한 이경옥 이문기 정인조 정진우 정필조 주범국 진도영 최영철 홍관식

6회(32명) 곽후섭 김상엽 김윤용 김종철 김태곤 김태환 노재형 문교순 박기복 배문수 배종권 변영수 손용수 염희성 유상환 이강운 이길상 이병종 임경택 정건용 정경규 정덕환 정상철 정승화 조윤승 천산무 최갑영 최병수 최석원 최인갑 최한병 허광렬 **(김태환, 이길상 2015년)**

7회(40명) 강병희 강창구 고석수 구백용 김갑성 김광욱 김명관 김명한 김산현 김영민 김용우 김종순 김진홍 김태배 류상남 박동순 박영섭 박재봉 박환배 배건식 배중현 서우찬 소진은 송외득 양종완 오동환 오장은 윤광선 윤진현 이동우 이민희 이성재 임성극 임의백 정보영 정성보 조덕찬 하근수 함홍주 허종호

8회(42명) 강성태 구본섬 권순길 김봉길 김영철 김영환 김자선 김재범 김진석 김태규 김형벽 도은영 문동현 문창화 박동열 박우상 박재범 박희욱 배기현 배덕수 배주원 서진근 손세일 안종열 엄덕양 이상목 이윤조 이종택 이준혁 이창박 이춘기 이호수 이희순 이희옥 장혁표 정금출 조윤제 지창수 최윤식 최재혁 홍광수 홍기섭

9회(46명) 강영진 고수홍 권영대 김 청 김경회 김성박 김영국 김용환 김이도 김정구 김종호 노도현 박남수 박당희 박영복 박춘경 박화철 성백규 신석현 안규현 안병환 원종회 유금열 유병철 유봉만 윤성태 윤일명 이대규 이재현 이주한 장동근 장병국 전인규 정 특 정민주 정해돈 조규대 조성진 조이호 지삼봉 최성욱 최위철 하재환 한동대 한득추 홍순대 **(박화철 2015년)**

10회(61명) 강희운 고광수 권용술 김계순 김기호 김기흔 김문희 김상규 김상태 김선동 김성규 김연수 김재곤 김정학 김종술 김종해 김창덕 김평순 박경수 박재경 박종문 박철민 배길순 송남진 신규태 오강욱 오기봉 우병윤 윤영태 윤재모 이계창 이근태 이민섭 이봉원 이상배 이승영 이승준 이언희 이의도 이재순 이정호 이창복 이현수 장기 최장우 최태환 한관수 한병조 한진희 허갑도 황일인 황정대 (이경재 2019년)

14회(99명) 강봉삼 강휘주 권 명 권근술 김경수 김도선 김동화 김명정 김무남 김무웅 김성부 김영대 김영식 김외웅 김재도 김종수 김준우 김창기 김창효 김형수 김화욱 남기우 남우준 노수덕 류충일 문성휘 문운용 박남조 박동수 박만인 박삼현 박종철 박진재 박철수 박해동 백태우 변회경 성이경 손광웅 손영목 송석춤 송재현 신기석 신용진 신준호 신현호 안명수 유정호 윤영현 윤정남 윤태규 이경우 이광우 이동식 이명재 이상봉 이수남 이은우 이재돈 이재인 이진우 이창언 이창화 이현영 이환균 이효근 이훈일 장삼식 장우일 전병순 전상배 전수신 전재원 정문건 정선언 정시영 정용마 정현구 조광명 조규대 조규항 조기정 조상원 조영봉 최낙섭 최병태 최봉현 최성웅 최충막 하광진 하문수 한규환 한문식 한수길 허 증 허민영 황수길 황원재 황홍석

15회(95명) 강무상 강무송 강민조 강부남 강부부 강창일 고태언 권승부 김경일 김경희 김뇌명 김대석 김대영 김삼곤 김상차 김소현 김송평 김쌍열 김양일 김양정 김염훈 김옥규 김완식 김용세 김윤배 김정환 김종태 김종한 김준군 김충식 김판열 김학현 김황영 남암순 문옥분 박국웅 박복만 박소남 박영길 박영무 박종석 박천호 박철양 박효가 배성훈 서영진 손부홍 송길웅 신용기 신현영 윤우경 윤휘정 이 건 이 준 이상호 이순구 이승우 이은수 이의일 이재원 이정부 이종명 이종수 이종희 이필언 임영길 장영일 장종호 정석우 정옥종 정준수 정행남 조규증 조상호 조영일 조일랑 주진종 천신일 최 욱 최무길 최병곤 최병우 최원수 최창석 하영수 하정부 한도근 한진출 허경도 허광길 허종덕 홍 의 홍의찬 황건세 황중부 **(임영길 2022년)**

16회(98명) 강동관 강상권 강영주 강원경 강인근 강종국 강진중 강홍조 공명규 권명석 권복술 권석동 김 조 김광수 김광용 김길정 김덕찬 김두응 김박일 김상웅 김상효 김성극 김연호 김영부 김영우 김응진 김인국 김일규 김정우 김찬문 김철곤 김태일 김휘부 노상현 문성환 민신웅 박 홍 박두영 박소웅 박수평 박영기 박용원 박종봉 박종영 박춘호 방수근 배정희 서고명 서정호 서효조 성기식 신진호 손경식 손송방 손한조 송규정 송자문 신평양 안국정 양성민 양휘부 여성국 오광치 옥무웅 옥윤석 유정호 윤효주 이겸일 이경환 이규방 이길홍 이무근 이무영 이성남 이양근 이영재 이종승 이채언 이철수 이효원 이훈민 임 심 임승언 장시총 정영일 정우광 정원철 정일성 조원제 차상영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한이현 한일탕 허 곤 황규호 황태우

17회(83명) 감정은 권경술 권화영 김길우 김길호 김대희 김동윤 김동조 김무원 김부근 김상천 김성오 김용구 김용남 김용정 김원남 김재봉 김정남 김종영 김준연 김준위 김중성 김지창 김창운 김충겸 남궁성은 노재윤 박 찬 박가식 박건양 박신도 박영일 박인사 박재구 박종구 박홍이 박홍식 백철균 서정승 서창석 송상훈 송유근 송인문 신종 신홍규 심문섭 양상진 어윤대 오진식 오태식 우기남 윤성욱 윤수성 이건웅 이광석 이세복 이수창 이정보 이종혁 이주봉 임우택 장길성 장승구 장응석 장호남 전경명 전대홍 전영부 정동길 정두호 정량부 정병렬 정왕주 정태일 제양성 조증언 천용광 최봉림 최성호 추병심 하영수 허진행 황성진 **(박종식, 송유근 2015년)**

18회(108명) 갈영수 감대원 강덕응 강만수 강성태 강승무 강영호 강인섭 곽병태 구영곤 김경겸 김경권 김경화 김광웅 김귀언 김기섭 김길제 김대욱 김두천 김만수 김병대 김사권 김상균 김성건 김성수 김성준 김영국 김영옥 김영일 김옥길 김용기 김재창 김재환 김정래 김종상 김종철 김준길 김지호 노정규 류종우 문창엽 박 용 박건태 박기일 박기주 박노숙 박덕봉 박동오 박상욱 박석도 박선동 박영일 박용주 박용혁 박원태 박종구 박종만 박준성 박중수 박호성 박효영 배공내 백승래 서부원 서재봉 심현기 손무열 손천규 송수일 안창범 양세수 오수환 오재동 우원호 윤봉수 이긍희 이대운 이상영 이승춘 이영범 이영호 이재일 이재환 이종순 이태우 이형석 임채영 전기준 전병회 전영석 정구홍 정재호 조성재 주상섭 지문석 채수일 천두갑 최진수 최희영 한기철 허도행 허만조 허성태 허영태 홍우재 홍진표 홍창우 황광건 **(박기주 2017년)**

19회(105명) 강동완 강환섭 고광호 고문찬 공기주 권정덕 권철현 김경우 김경재 김규욱 김덕규 김덕수 김명수 김문기 김배호 김봉호 김석구 김석윤 김성봉 김성욱 김성희 김순호 김양규 김영복 김영탁 김익건 김일천 김정우 김중기 김중우 김진국 김진호 김철호 김행복 남기진 남병근 남진현 남태현 노덕현 노은영 문관진 박갑진 박상식 박성철 박종화 박차천 배영구 서승성 선우일남 성환진 손기태 손철수 신동인 신봉문 신윤철 안정모 오일환 오태수 윤수상 윤영규 이강용 이근식 이기주 이명환 이병구 이상반 이상우 이선행 이성탑 이영환 이용조 이용흡 이장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운 이창흡 이춘만 임장주 임채원 장조훈 장홍의 전영석 정규병 정규영 정극수 정원찬 정윤영 정태을 조성환 조순제 조재윤 진수상 최경석 최정학 최화익 한병선 한종환 허남걸 허홍욱 홍승표 황성진 황태경 황태원 **(오태수 2015년)**

20회(90명) 강기철 강병천 강석근 강현진 고세훈 구변홍 금석주 김대업 김두영 김병문 김성환 김세준 김순신 김영철 김우홍 김일석 김정환 김종민 김진환 김찬만 김현영 김태선 김태영 김한성 김한원 김행기 김행오 남기석 목일진 문성채 문시영 문행남 민영기 박 준 박유양 박용덕 박재봉 박형준 배서호 배정호 배준태 백완균 백창열 서상희 설창환 손춘수 송상윤 송상현 송영주 신원기 심두수 안재상 양승태 양태윤 여정호 오경석 오기현 옥성만 우성하 유근준 윤우성 이계명 이맹기 이석창 이수호 이실근 이영오 이우종 이응천 이정식 이종열 이종찬 이천규 이화춘 임성춘 장재성 전일준 정규식 정세현 조영철 차용환 채경석 최명호 최상인 최인식 최장하 한개정 허규판 허남균 홍순태 **(김종민 2015년)**

21회(108명) 강민우 강삼태 강수경 강순석 강영도 강원태 강창수 강태순 공기화 구본능 권오웅 권용효 김귀경 김기현 김남규 김대웅 김동우 김상덕 김상하 김성수 김완일 김유건 김조영 김지호 김창수 김현태 김형동 김홍근 김홍배 김황세 마상준 박명문 박명욱 박상기 박성렬 박영석 박임송 박자인 박재명 박재선 박종응 박주용 박찬영 배영일 변창섭 서덕수 서병문 성상철 신남식 신태윤 안상갑 안승원 안채식 양병주 여환부 오거돈 오태규 우성건 우종득 유일건 육화원 윤대희 윤상철 윤승근 이 혁 이동채 이명환 이문수 이성집 이세진 이세명 이순희 이영상 이영훈 이익규 이임덕 이재택 이재호 이재홍 이종규 이한석 임경범 장 호 장정표 전기환 전우성 정상인 정연호 정태영 조갑식 조덕준 조상호 조성근 조학래 조현국 조호제 진영천 차동민 최규용 최낙환 최동완 최수명 박원명 한승현 허영도 황병구 황연실 황윤성

22회(112명) 강경관 강상대 강성봉 강성숙 강호일 고인준 곽대흥 구자룡 김광국 김도삼 김동욱 김동원 김동진 김명수 김무술 김석영 김성재 김성태 김수열 김완식 김우홍 김원주 김임봉 김정곤 김정민 김진영 김진철 김창해 김창호 김철현 김학균 김해현 김형경 남백우 노평호 문태용 박광용 박승목 박언표 박재구 박재상 박준호 박천명 박철민 박행천 박호병 박홍조 반병일 방영수 배춘식 배훈영 백봉주 변대석 변종호 부창전 손병용 손연모 손용섭 송현준 신윤근 안계환 안영수 안진환 안홍철 양한식 엄남기 여상규 오세길 유인조 유재락 윤성복 윤한복

이경상 이민성 이병수 이상주 이상혐 이승
휘 이영화 이응규 이윤제 이인규 이홍기
장광훈 장무성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전길
홍 정해진 조봉국 조정규 조홍기 주성민
주우실 최 효 최성열 최영택 최학봉 최호
렬 하성일 허현성 한군택 한태길 한형우
허남면 허범도 허승조 허인석 홍순욱 홍태
구 황영환 **(김무술, 이홍기 2015년)**

23회(111명) 강구현 강상대 강창보 곽상인
구대용 구영수 구자섭 권오종 김건일 김동
옥 김상수 김상영 김상대 김상현 김석현
김성주 김영목 김영철 김영화 김윤관 김익
곤 김정륵 김종배 김종훈 김주찬 김중광
김진엽 김태성 김태용 김태정 김태홍 남기
운 도명세 문규철 문명욱 문창호 박광규
박동현 박석관 박수갑 박익상 박종만 박창
수 배준석 백창영 변상식 서승환 서영수
서한현 손군식 송은재 송재섭 송충송 신경
재 신만동 신상희 신언극 신원종 신해철
안경섭 안범두 안병관 안병율 오도준 옥치
범 유석산 유원형 유진무 윤길원 윤만수
윤병조 윤순현 이덕권 이덕일 이동성 이문
희 이병찬 이상렬 이수백 이승구 이승현
이승호 이영재 이충호 장기원 장대익 장동
국 장병규 전명식 전무수 전상대 전원익
전재홍 정규봉 정기웅 정동일 정상건 정용
호 정재식 정희원 조완제 조장래 조한용
조현표 채행윤 최영묵 최인식 하승윤 허근
창 허병상 홍종기

24회(120명) 강기중 강동우 강명득 강영창
강정원 강철흠 공문수 곽두희 구본열 권수
찬 권혜영 김경남 김경석 김도현 김동운
김동진 김명배 김무성 김성권 김성득 김승
탁 김영건 김영민 김영범 김영식 김운섭
김윤수 김은호 김인구 김정신 김진윤 김학
성 김한군 김현태 남진현 노상우 노흥덕
박군철 박병렬 박성표 박윤성 박정문 박창
종 박창호 박천호 박해성 백산흠 백운룡
변용준 변정규 서기홍 서정득 석문식 손세
영 손인수 손종식 신병식 신병현 신장우
안형수 안홍모 양순권 여철우 우홍하 원동
희 윤석만 윤재인 윤지현 이 수 이기원 이
대영 이동진 이명규 이명복 이상학 이영준
이영태 이재능 이재성 이창무 이한영 이현
국 이효구 이희성 임덕철 임민호 장민재
장원서 전대현 전용우 정광윤 정병근 정병
동 정무열 정용호 정윤상 조병제 조영수
조용긴 조용화 조재진 주정규 지인덕 진병
건 차동렬 차문광 최동우 최석구 최원주
최진우 최현규 최홍철 하 욱 하재갑 하희
조 한상렬 한태윤 홍용기 황규선 황성훈

25회(95명) 강용주 고명식 권수갑 권태용
김구화 김길수 김남일 김대현 김덕우 김동
진 김문국 김상겸 김상수 김상필 김성환
김수국 김수룡 김수석 김영명 김영호 김옥
권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우형 김원욱
김종윤 김종현 김진우 김진철 김철수 문재
인 박경립 박광용 박동건 박명우 박세철
박영하 박인동 박종찬 박호철 박홍기 배동
명 백승익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석창재 손국영 손기천 손지용 송기현 송세
경 송영근 승효상 신성기 신성우 안희석
양승욱 엄수훈 오왕득 우진태 유용기 윤순
기 윤종렬 이근만 이대우 이병철 이민희
이윤택 이재욱 이찬형 이창훈 이홍성 이홍
익 임상택 정길영 정재봉 정효성 조 익 조
경일 조광제 조대우 조병욱 주재겸 차인재
최동하 최종덕 최태동 탁준길 태명산 한준
석 허 펵 허영형

26회(106명) 강도식 강영념 고석춘 구영호
권영인 권해국 김 석 김 형 김두천 김만석
김섭권 김수인 김영섭 김영훈 김원철 김재
수 김재용 김정곤 김종배 김종우 김주병
김태규 김태년 김택영 김호용 김홍식 민창
현 박군석 박대철 박동조 박두식 박상호
박상호 박원상 박의영 박인섭 박장현 박재
욱 박판기 배용호 백문현 성백은 성재업
성재일 손욱호 신기용 신대철 신재호 심덕
수 심승택 양준영 양지영 양희권 왕진일
왕효석 유근욱 윤경일 윤수현 윤종섭 윤흥
석 이경호 이규용 이동일 이명진 이상원
이성만 이순철 이양춘 이재봉 이재혁 이정
곤 이창식 이철학 이현곤 이희준 임석주
임철호 임형규 장만욱 장성지 정국근 정승
규 정영룡 정윤철 정의교 정한경 정현준
조만석 조일제 조태웅 조해금 차인식 최낙
준 최명해 최성탁 최성수 최응덕 최의수
최징환 하성봉 하원규 한원우 허갑석 현동
우 홍순하

27회(81명) 강봉호 강용생 강태영 김강호
김경수 김경총 김경진 김광익 김근우 김동
조 김명기 김민수 김병옥 김병철 김안석
김연산 김용섭 김우진 김종도 김종하 김지
언 김태우 김태윤 김학희 김호균 김홍근
김황엽 문두찬 문성기 박규욱 박병주 박정
민 박종국 박찬서 박치호 박현호 반정열
배인환 배효택 서기룡 성영표 손정식 신한
원 안종택 양태종 오용환 유성모 유영상
윤모성 윤문태 윤정환 윤종락 윤지한 이
현 이광호 이상춘 이성득 이요섭 이원철
이인규 이재덕 이종찬 이현식 장인철 장창
조 전 풍 전태원 정남근 정두식 정상곤 정
우영 정정길 조용수 조우영 천우태 최경룡
최용호 최휴진 태종국 하창우 한수길

28회(87명) 강현안 고 진 구영소 권수원
권태세 김관세 김만종 김부윤 김선경 김용
섭 김익성 김인준 김종성 김주식 김준연
김창수 김창준 김철수 노상천 노영현 리신
호 민교식 박병곤 박병준 박성권 박세혁
박영규 박윤철 박재춘 박종기 박진국 박진
화 배명철 배효진 백영호 서기회 성락문
신중현 안 풍 안병직 안재홍 양동욱 엄보
용 엄호성 오현석 옥상곤 유봉수 유승일
윤경십 윤대주 윤덕승 윤명수 윤철상 이경
포 이민우 이양훈 이원철 이윤규 이인재
이종대 이흥오 임영태 임익성 임재덕 전광
병 전남실 전병철 진재만 진진학 정근재
정두현 정백수 정영주 정치영 정해영 조대
현 조석태 주종목 주창석 최강호 최광해
최연욱 한명재 한봉석 한영호 허남식 황훈
성 **(안 풍 2022년)**

29회(109명) 강대용 강병철 권오영 금시환
김 영 김기수 김기영 김대영 김대욱 김도
태 김석윤 김성근 김성율 김세원 김연휘
김용식 김용환 김윤영 김인술 김정규 김종
운 김종진 김철오 김태완 김한근 김호성
노동욱 류완식 민동식 박경환 박국인 박근
우 박동일 박동혁 박병룡 박병태 박상길
박성근 박성철 박인평 박철환 박효근 배진
영 백경돈 백성욱 변종만 사공운곤 서봉교
서석철 서석희 손재찬 손태권 손홍근 신영
주 신용인 신호범 신홍기 안창홍 양길용
양석모 양성봉 양승오 오세용 윤 욱 윤석
희 윤종경 이공철 이남중 이문열 이범익
이상용 이석조 이성열 이승우 이승호 이영
재 이재성 이준환 임상흔 임채병 장 만 전
장화 전정국 정 김 정 란 정대현 정순정
정영주 정진환 정희용 조승제 조진수 조창
열 조한욱 주재휘 차의수 최기훈 최문성
최원형 최정만 최종열 추영배 하현대 한승
정 한승동 한휘철 허광욱 현계성 황유평
(윤종경 2015년)

30회(117명) 구을석 권용택 김경섭 김경수
김계형 김관일 김기업 김백수 김상현 김성
은 김수호 김순구 김승범 김영욱 김영일
김영호 김용한 김유기 김인섭 김재수 김재
일 김종곤 김종진 김진영 김철광 김해곤
김현태 남영효 노동춘 도문성 마창수 박규
완 박성태 박원호 박은수 박인달 박재벽
박정국 박종배 박회관 방문수 배경조 배기
정 변윤수 서강태 서민석 성낙도 송한식
신구균 신윤원 신인기 심종수 안종화 양문
섭 오충조 옥유전 유대현 유영목 유재일
유현덕 윤기총 윤인태 윤종순 이경우 이기
환 이동근 이명건 이상구 이상필 이선광
이성기 이수성 이영준 이인호 이종욱 이종
훈 이진걸 이철호 이태봉 이학수 이한수
이해정 이호겸 이환기 인준승 장봉규 장석
일 장호영 장훈상 전경재 전동균 전준호
정경목 정기룡 정병효 정부광 정성원 정승
진 정영호 정우정 정태환 정희석 조경제
조동호 조순영 조재성 채영재 최 욱 최석
렬 최우철 최진곤 하규양 하영동 하재명
한효용 황윤식 황철민 **(김영일 2015년)**

31회(77명) 고영호 공종렬 김 만 김명우
김시현 김의석 김정덕 김종호 김태근 김태
주 김헌주 김형수 김호성 김효연 남기태
남철우 류명석 문성일 민종현 박경수 박인
정 박종호 박준석 박춘열 박해성 박희완
배인환 서규영 서동균 서정호 서태교 성락
순 손영태 손은정 신상하 신수영 신용범
심재홍 안중수 양문석 오민일 오용환 옥치

2014년도 회비 납부 현황

- 회장 허범도 3,000만원
- 자문위원

송규정(16), 김길제(18), 김경재(19), 박용덕(20),
임경범(21), 전우성(21), 정상인(21) 이상 100만원

- 부회장

박상호(26), 박명진(33) 이상 300만원

고병호(22), 박찬명(22), 이영화(22), 곽두희(24),
노상우(24), 박창호(24), 김진철(25), 박종찬(25),
최동하(25), 최강호(28), 박성철(29), 김현태(30),
서하수(30), 윤성덕(30), 최우철(30), 이병태(31),
김법영(33), 류장근(33), 안재익(36), 유호섭(37),
박인석(39), 우영환(40), 김형률(41), 이양걸(41)
이상 100만원

- 명예부회장

문재인(25) 이상 100만원

총 35명 (합계 6,800만원)

※ 용마바둑회 특별기금 500만원

◎본부 분담금 낸 기수
: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21회, 23회, 24회, 25회, 26회, 28회, 29회, 30회, 31회, 34회, 36회, 37회, 39회, 40회, 41회, 42회(2013년분), 43회, 48회

◎야구후원금 낸 기수
: 15회, 16회, 17회, 18회, 20회, 21회, 23회, 24회, 25회, 26회, 28회, 29회, 30회, 31회, 34회, 36회, 37회, 39회, 40회, 41회, 42회(2013년분), 43회

호 유봉학 윤석중 이경희 이병곤 이병태 이상일 이성식 이수준 이승진 이채웅 이홍규 임종태 장건호 장평우 정무석 정창규 정철수 조성근 조영기 차인용 최경우 최부영 최인폭 최재선 최재식 최주홍 최진섭 최해영 하병수 하병관 하학렵 한문성 허일헌 홍성수

32회(53명) 강기상 고병재 권학률 기영수 김광기 김상범 김소용 김영길 김영현 김종식 김종판 류성렵 마승철 민길식 박상학 박우상 박윤대 박진원 손병철 신국선 신한국 안병철 안병헌 안영호 안정모 오경명 우득현 윤종열 이관우 이병준 이병훈 이원천 이재수 이종수 임인섭 임채균 장영택 전성황 정성수 정용운 정의주 정재종 조준현 지성호 최승찬 최영훈 최종호 최춘호 최호영 한문진 허 정 황문찬 황성범

33회(53명) 공진환 권영식 김 철 김계주 김근수 김기산 김명환 김범영 김원일 김재선 김정성 김종만 김종욱 김태균 김태훈 김호진 남경태 노경호 류장근 박병진 박성병 박용득 박치호 박태종 배성만 배성수 배종현 백수현 서광기 송종헌 신동천 신용준 심희찬 안동균 안영훈 예영찬 오상기 오한선 이훈 이광호 이동근 이윤조 이해승 이헝근 임명제 조덕환 지창근 최동호 최영두 최웅남 최호경 최홍원 황용수

34회(32명) 곽수균 권장우 김상환 김종열 김중근 김충환 김태완 김태하 김희영 도영민 박광오 박기훈 박종수 박철웅 박철호 서영화 서용운 오상민 오승대 이상윤 이성훈 이재완 정노혁 정성근 정하태 조 선 조문국 조시형 진양효 태입산 홍승협 황기윤

(정성근 2015년, 정하태 2016년)

35회(39명) 강현욱 구자민 김경환 김기철 김동인 김동일 김우경 김우신 김윤석 김홍곤 나동욱 류인수 모재현 문홍근 박찬익 서석권 성창용 손석우 손재수 손태섭 안종열 오시영 이기석 이동형 이영오 이종찬 이창성 장우진 전해진 정성윤 정인철 정효영 조흥섭 주귀홍 진효준 천현석 최기평 하승훈 황용순 **(김윤석 2015년)**

36회(34명) 곽상호 김규선 김덕환 김영훈 김종백 김창일 김한교 김희환 문상식 박명하 박영준 박영찬 박용철 박철종 서광원 신용덕 안재익 양석용 오정광 유용수 이상권 이성호 이우수 이원석 이정영 이학수 임창선 정규영 정인석 차대일 채현철 최성필 하재철 홍의창

37회(28명) 권기원 김성현 김영곤 김원범 김태중 문진형 박만규 박선호 박용진 성창수 송경철 신우진 양귀수 유효섭 이상백 이용한 이주홍 이한주 장원익 전인수 조상현 조성각 천윤찬 최환승 하병혁 허부남 홍병일 황태윤

38회(35명) 곽동엽 권두성 김경태 김구도 김기현 김대훈 김문철 김성철 김영갑 김원철 김찬수 김판준 김현민 류인식 문귀상 문익현 박인철 박준표 박진권 박현수 신동훈 안길수 윤경만 이동훈 이종명 이창호 이한국 정원제 정인철 정재형 조석태 조수용 조용철 차성철 채주홍

39회(38명) 김경곤 김대중 김도경 김병기 김용태 김원범 김윤홍 김종열 김천술 김형보 김형철 김희영 노성수 박근태 박상환 박수곤 박용한 박인식 박종국 박준곤 배효민 손석호 심왕섭 안승진 여동섭 원우광 윤원욱 이상학 이성태 이승기 이준영 이진호 정우영 정의창 정진해 조금룡 진병화 차문영

(차문영 2015년)

40회(39명) 강문성 강창지 권귀동 권병서 김경환 김동근 김성진 김영진 김종철 나수민 문기성 문태영 박근성 박무성 박상범 박양곤 박재현 박제생 배병훈 배영진 배진수 심 철 예진원 옥진형 우영환 윤성용 이 광 이순호 이영철 이정산 임태영 장갑구 장병재 전규열 정찬호 최용석 최태훈 한수열 홍재용 **(김종철 2017년)**

41회(27명) 강석희 곽성국 김범성 김형률 김희식 박보환 박상환 박승창 박정의 성종훈 안공근 원윤건 윤성보 윤종진 이경석 이경호 이수영 이양갑 임병호 정립상 조재봉 천성원 하범종 한정호 허종윤 허치회 홍석우

42회(12명) 권영태 김규식 김병기 박동식 백영환 서정호 신동복 유기만 이상호 전병호 정홍준 제정환

43회(17명) 강병규 김영식 김영재 김진수 박경노 백태건 박현규 심문섭 이성훈 이승택 이용상 이호영 정동수 정용훈 정효범 최용석 최한립 **(박영규 2015년)**

44회(14명) 김종천 김창용 남경민 박정민 서영민 예상수 이동렵 이창용 이현규 임정훈 임지훈 정종윤 딱정환 함인주

45회(8명) 김상수 김태우 김현호 박 웅 이상현 장성익 진상영 최재영

46회(14명) 강성백 강진희 구경민 권성기 권진근 김동희 노주현 박태일 윤성환 이경돈 이주용 정영석 최원석 한영길 **(정영석 2016년, 한영길 2022년)**

47회(5명) 강동훈 고담우 성상용 손교영 임형길

48회(3명) 김정훈 박성준 이동재

49회(6명) 김원식 김학균 김현우 안형수 장민건 조영철

50회(4명) 강 철 김윤창 박현욱 이인준

51회(4명) 강승호 반길호 이시원 정진우

52회(3명) 구태영 장태원 홍지호

53회(1명) 이재홍

54회(1명) 강종수

55회(1명) 최범준

58회(1명) 정 혁

65회(1명) 최성원

69회(1명) 정민기(2023년)

경고학교운영위원회 등(2명)

운봉선(2015년), 주차증

기수 & 이름 확인불명 45명

모교발전기금 개인별 기탁 현황(본부)

2014. 7. 9. 이전 접수분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故김근순(1회)	100만원	장재수(6회)	20만원	강태영(9회)	10만원	임호용(10회)	20만원	김수원(12회)	10만원	안영규(12회)	20만원	탁혜정(12회)	10만원	박춘호(16회)	10만원
김희철(3회)	30만원	정건용(6회)	10만원	박덕희(9회)	20만원	전영대(10회)	20만원	김용호(12회)	10만원	안영배(12회)	10만원	허일헌(12회)	30만원	여상국(16회)	10만원
송두호(3회)	1000만원	정상철(6회)	30만원	성백규(9회)	10만원	정승석(10회)	50만원	김우성(12회)	10만원	염태섭(12회)	30만원	한준배(12회)	10만원	강주수(17회)	10만원
김주희(4회)	20만원	정세동(6회)	20만원	신석현(9회)	20만원	조양제(10회)	1000만원	김종수(12회)	50만원	오세정(12회)	20만원	강정성(13회)	30만원	권경술(17회)	100만원
박석만(4회)	20만원	최상혁(6회)	10만원	이대규(9회)	100만원	허명오(10회)	200만원	김종원(12회)	10만원	옥계현(12회)	100만원	이정영(13회)	30만원	김길호(17회)	100만원
박홍기(4회)	30만원	허 택(6회)	30만원	이영규(9회)	10만원	공상기(11회)	100만원	김송일(12회)	10만원	왕한균(12회)	100만원	정철기(13회)	30만원	김동수(17회)	500만원
양종학(4회)	300만원	이우희(7회)	50만원	한동대(9회)	50만원	김재관(11회)	30만원	김진갑(12회)	20만원	윤성희(12회)	12만원	황일안(13회)	100만원	김동조(17회)	10만원
장수희(4회)	100만원	故공상태(8회)	100만원	황영선(9회)	20만원	백연균(11회)	30만원	김철기(12회)	100만원	이수영(12회)	10만원	김경일(15회)	1000만원	김두백(17회)	10만원
정순모(4회)	200만원	구본선(8회)	100만원	강상국(10회)	20만원	심재용(11회)	20만원	김준광(12회)	10만원	이송훈(12회)	10만원	서정우(15회)	10만원	김무부(17회)	100만원
정인조(5회)	100만원	김봉갑(8회)	500만원	김선동(10회)	20만원	강수현(12회)	200만원	김효구(12회)	10만원	이용언(12회)	50만원	손부호(15회)	500만원	김백수(17회)	300만원
김윤용(6회)	10만원	박동일(8회)	1000만원	강성규(10회)	50만원	강창수(12회)	30만원	남기용(12회)	1000만원	이원우(12회)	100만원	이상도(15회)	30만원	김명문(17회)	30만원
나오연(6회)	100만원	안종렬(8회)	100만원	박재경(10회)	10만원	구봉근(12회)	30만원	박영문(12회)	10만원	임정명(12회)	30만원	임영갑(15회)	100만원	김상천(17회)	100만원
노재형(6회)	10만원	윤상현(8회)	10만원	박충모(10회)	20만원	권시갑(12회)	20만원	박용모(12회)	10만원	정대석(12회)	10만원	하정부(15회)	10만원	김성락(17회)	10만원
오영은(6회)	200만원	이윤조(8회)	100만원	신대수(10회)	20만원	김무생(12회)	30만원	박성문(12회)	10만원	정경철(12회)	200만원	한해수(15회)	1000만원	김성오(17회)	50만원
이길상(6회)	30만원	장학표(8회)	100만원	오강욱(10회)	200만원	김상하(12회)	10만원	박종정(12회)	100만원	최범준(12회)	10만원	강종국(16회)	10만원	김승현(17회)	100만원
이희모(6회)	30만원	김영국(9회)	10만원	이봉원(10회)	10만원	김선일(12회)	30만원	박창수(12회)	30만원	최봉훈(12회)	10만원	강진웅(16회)	10만원	김용구(17회)	100만원
임경택(6회)	10만원	김충호(9회)	50만원	이언희(10회)	20만원	김성찬(12회)	50만원	안상철(12회)	30만원	최신일(12회)	20만원	김상효(16회)	100만원	김조임(17회)	100만원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김준연(17회)	100만원	김상도(19회)	10만원	장무성(22회)	100만원	이영덕(26회)	100만원	강석철(30회)	30만원	황철민(30회)	100만원	하영수(31회)	30만원	변영호(41회)	10만원
김준위(17회)	100만원	김석윤(19회)	20만원	장성묵(22회)	1000만원	정거돈(26회)	100만원	권영인(30회)	30만원	30회 울산동기회		하학열(31회)	120만원	신동진(41회)	20만원
김지창(17회)	30만원	김양곤(19회)	50만원	장성덕(22회)	1000만원	정국근(26회)	100만원	권용택(30회)	50만원		450만원	한광규(31회)	12만원	안경근(41회)	10만원
김창운(17회)	300만원	김영우(19회)	100만원	정해진(22회)	50만원	정익교(26회)	100만원	구을석(30회)	10만원	공광욱(31회)	50만원	허일현(31회)	12만원	유수호(41회)	10만원
김태호(17회)	20만원	김정국(19회)	10만원	조윤재(22회)	200만원	조일제(26회)	30만원	김경수(30회)	30만원	공종철(31회)	12만원	홍성수(31회)	120만원	윤성보(41회)	20만원
김휴남(17회)	10만원	김종기(19회)	10만원	최학봉(22회)	100만원	최수일(26회)	50만원	김기섭(30회)	100만원	권해철(31회)	12만원	김창남(32회)	20만원	윤성춘(41회)	10만원
문석웅(17회)	50만원	김철호(19회)	100만원	허범도(22회)	1000만원	허원규(26회)	500만원	김기수(30회)	10만원	김경열(31회)	12만원	이병준(32회)	100만원	이경석(41회)	50만원
박가식(17회)	100만원	남기진(19회)	100만원	김동욱(23회)	200만원	한원우(26회)	100만원	김기업(30회)	50만원	김기정(31회)	100만원	최춘호(32회)	100만원	이경호(41회)	30만원
박신도(17회)	200만원	박갑진(19회)	30만원	김동옥(23회)	50만원	하주곤(26회)	50만원	김백수(30회)	30만원	김 만(31회)	100만원	허 규(32회)	10만원	이양길(41회)	200만원
박영두(17회)	20만원	박동해(19회)	300만원	김상영(23회)	50만원	26회 구행회	100만원	김상직(30회)	10만원	김성수(31회)	300만원	허재창(32회)	30만원	이종인(41회)	10만원
박영일(17회)	10만원	박상식(19회)	50만원	김영기(23회)	200만원	김진희(27회)	100만원	김성목(30회)	10만원	김영철(31회)	12만원	계동원(33회)	30만원	이주하(41회)	30만원
박인시(17회)	100만원	박종화(19회)	100만원	김용기(23회)	20만원	류재걸(27회)	10만원	김세일(30회)	30만원	김재술(31회)	60만원	김기선(33회)	30만원	이준석(41회)	10만원
박재구(17회)	20만원	성낙출(19회)	100만원	김용선(23회)	30만원	문두찬(27회)	500만원	김승대(30회)	10만원	김정덕(31회)	12만원	김범영(33회)	3000만원	임병호(41회)	10만원
박종구(17회)	100만원	신유철(19회)	30만원	김정목(23회)	20만원	박치호(27회)	1000만원	김욱상(30회)	10만원	김정택(31회)	12만원	김재선(33회)	100만원	장익조(41회)	10만원
박청홍(17회)	100만원	안청모(19회)	20만원	김송광(23회)	100만원	윤송석(27회)	10만원	김재수(30회)	30만원	김충호(31회)	120만원	김종인(33회)	12만원	정필상(41회)	10만원
백철균(17회)	10만원	이성달(19회)	100만원	김태용(23회)	100만원	이요섭(27회)	30만원	김종진(30회)	30만원	김진국(31회)	12만원	류장근(33회)	100만원	조원호(41회)	10만원
서사홍(17회)	20만원	이용만(19회)	10만원	김 현(23회)	30만원	한수갑(27회)	200만원	김종휘(30회)	100만원	김태근(31회)	100만원	류홍영(33회)	30만원	천성원(41회)	10만원
서정승(17회)	200만원	이용흠(19회)	1000만원	노영배(23회)	200만원	27회 동기회(60명)		김창근(30회)	30만원	김판덕(31회)	12만원	박명진(33회)	5500만원	최호열(41회)	10만원
손성근(17회)	200만원	이정희(19회)	100만원	박수갑(23회)	100만원		2740만원	김해곤(30회)	200만원	김현주(31회)	12만원	박성범(33회)	10만원	추교용(41회)	30만원
송유근(17회)	30만원	장홍의(19회)	500만원	서영수(23회)	100만원	LA지역 27회 동기회		김현태(30회)	100만원	김현율(31회)	12만원	백수현(33회)	50만원	허치호(41회)	50만원
송인문(17회)	100만원	최언근(19회)	10만원	서한현(23회)	10만원	(4명)	400만원	박동욱(30회)	50만원	남기태(31회)	200만원	서재강(33회)	100만원	홍동훈(41회)	30만원
신정아(17회)	10만원	최화억(19회)	10만원	손군식(23회)	100만원	구영소(28회)	100만원	박원소(30회)	100만원	남철우(31회)	60만원	송종현(33회)	100만원	홍석우(41회)	50만원
신 충(17회)	30만원	황태경(19회)	20만원	송충송(23회)	50만원	김명영(28회)	100만원	박재백(30회)	30만원	류명석(31회)	100만원	신용준(33회)	10만원	41회 산악회	30만원
안정의(17회)	30만원	황태원(19회)	1000만원	신상희(23회)	100만원	김명준(28회)	100만원	박정태(30회)	30만원	박경수(31회)	200만원	익 명(33회)	1000만원	이용상(43회)	10만원
여성열(17회)	10만원	황호균(19회)	100만원	안병율(23회)	20만원	김부유(28회)	100만원	박철우(30회)	100만원	박석기(31회)	100만원	이형근(33회)	50만원	김진수(43회)	20만원
오태식(17회)	100만원	강석근(20회)	300만원	안병하(23회	20만원	김용석(28회)	10만원	서강태(30회)	10만원	박석두(31회)	100만원	정안실(33회)	10만원	최성림(43회)	40만원
우기남(17회)	50만원	강영한(20회)	10만원	옥시범(23회)	300만원	김준연(28회)	100만원	서민석(30회)	60만원	박인철(31회)	12만원	최영두(33회	12만원	44회 동기회	500만원
윤성욱(17회)	500만원	김세준(20회)	100만원	원인건(23회)	200만원	김청진(28회)	100만원	서복현(30회)	100만원	박종규(31회)	100만원	한상봉(33회)	100만원	장성익(45회)	50만원
윤수성(17회)	30만원	김원율(20회)	10만원	육병찬(23회)	20만원	김홍종(28회)	100만원	서재원(30회)	30만원	박희일(31회)	12만원	34회 동기회	1000만원	47회 동기회(26명)	
이건우(17회)	100만원	김일석(20회)	100만원	유순현(23회)	200만원	노영현(28회)	200만원	서하수(30회)	200만원	배정우(31회)	12만원	이재완(34회)	500만원		300만원
이성흠(17회)	30만원	김태선(20회)	300만원	이동성(23회)	100만원	노태욱(28회)	00만원	석내식(30회)	30만원	서동균(31회)	12만원	이진호(34회)	200만원	김경원(54회)	10만원
이세북(17회)	1000만원	김태영(20회)	500만원	이문희(23회)	200만원	박석환(28회)	100만원	송영환(30회)	100만원	서수교(31회)	100만원	김동인(35회)	10만원	故표종빈(64회)	500만원
이수창(17회)	100만원	김청오(20회)	1000만원	이병찬(23회)	300만원	박종기(28회)	50만원	송한식(30회)	30만원	서태교(31회)	100만원	김병수(35회)	10만원	故박태현 은사	
이우기(17회)	10만원	박병철(20회)	500만원	이상수(23회)	50만원	송영석(28회)	20만원	신범주(30회)	30만원	성오용(31회)	12만원	이남기(35회)	10만원	(박치호, 27회)	1000만원
이일영(17회)	10만원	박형준(20회)	100만원	이충호(23회)	100만원	엄보용(28회)	100만원	신연주(30회)	30만원	손은정(31회)	12만원	황용순(35회)	10만원	김해지역동창회	
이정부(17회)	10만원	백문찬(20회)	100만원	전영소(23회)	200만원	옥상곤(28회)	100만원	신용원(30회)	30만원	손정수(31회)	24만원	김철원(36회)	100만원		300만원
이종갑(17회)	10만원	신원기(20회)	200만원	전원익(23회)	30만원	윤경섭(28회)	100만원	안충하(30회)	100만원	손진기(31회)	12만원	이동희(36회)	30만원	뉴질랜드동창회	50만원
이종혁(17회)	100만원	이상근(20회)	100만원	정상건(23회)	200만원	이원철(28회)	300만원	오경태(30회)	10만원	신상하(31회)	12만원	임창섭(36회)	10만원	부산교통공사동아회	
이형우(17회)	100만원	장상배(20회)	300만원	조현브(23회)	50만원	임재덕(28회)	100만원	왕순오(30회)	30만원	신수열(31회)	12만원	정인석(36회)	30만원		100만원
장승구(17회)	200만원	장춘식(20회)	10만원	채행윤(23회)	100만원	정해영(28회)	100만원	유영국(30회)	10만원	심규열(31회)	12만원	김갑경(37회)	20만원	사하지역동창회	
전경명(17회)	100만원	정규식(20회)	300만원	최인식(23회)	50만원	한영재(28회)	200만원	유재일(30회)	10만원	심재홍(31회)	12만원	김원범(37회)	10만원		300만원
정량부(17회)	100만원	정용환(20회)	300만원	허복진(23회)	20만원	한수범(28회)	50만원	윤기승(30회)	50만원	안기수(31회)	24만원	박용진(37회)	50만원	샌프란시스코동문	
정태일(17회)	100만원	사상곤(20회)	200만원	허영곤(23회)	50만원	김기영(29회)	50만원	윤성덕(30회)	1000만원	안우현(31회)	60만원	양귀수(37회)	10만원		50만원
정혜표(17회)	10만원	채경석(20회)	200만원	손세영(24회)	100만원	김대오(29회)	3000만원	윤인태(30회)	50만원	오민일(31회)	300만원	조영규(37회)	20만원	(9회 조동훈, 윤종대,	
제양성(17회)	50만원	최장해(20회)	300만원	24회 동기회	4500만원	김도태(29회)	30만원	윤종순(30회)	30만원	오용환(31회)	120만원	홍병일(37회)	10만원	11회 추기석, 박병호,	
조용운(17회)	30만원	한기완(20회)	100만원	25회 동기회	6470만원	김석유(29회)	30만원	이광봉(30회)	30만원	윤정수(31회)	20만원	홍원석(37회)	10만원	12회 최수용,	
조승연(17회)	500만원	허규만(20회)	1000만원	김진철(25회)	1000만원	김경기(29회)	10만원	이광희(30회)	20만원	이병태(31회)	100만원	황태윤(37회)	10만원	14회 정소웅, 김철규,	
천용권(17회)	10만원	허남균(20회)	300만원	박영우(25회)	30만원	김인술(29회)	100만원	이기환(30회)	50만원	이석우(31회)	12만원	곽동열(38회)	10만원	21회 손석보, 양경현,	
최만식(17회)	5000만원	강창수(21회)	500만원	강영남(26회)	200만원	김정일(29회)	100만원	이영건(30회)	30만원	이승진(31회)	12만원	박준표(38회)	20만원	정갑식, 김수라, 하재형,	
최성호(17회)	1000만원	김성환(21회)	300만원	권중대(26회)	100만원	박동일(29회)	50만원	이영순(30회)	30만원	이재웅(31회)	24만원	오희진(38회)	10만원	23회 방기순,	
추봉식(17회)	10만원	진재호(21회)	1000만원	김두천(26회)	100만원	박동혁(29회)	200만원	이인갑(30회)	50만원	장건호(31회)	12만원	이종명(38회)	300만원	26회 육승주)	
하영수(17회)	300만원	21회 동기회	4710만원	김상현(26회)	500만원	박상길(29회)	100만원	이학수(30회)	700만원	장성호(31회)	12만원	김도경(39회)	20만원	시카고동문	107만원
허종연(17회)	30만원	구자룡(22회)	100만원	김우갑(26회)	50만원	박성철(29회)	200만원	이한수(30회)	20만원	장재훈(31회)	12만원	김윤홍(39회)	30만원	(22회 김정수 회장 외)	
황중부(17회)	10만원	김도상(22회)	100만원	김중우(26회)	200만원	배진영(29회)	100만원	이한기(30회)	30만원	장평우(31회)	300만원	김진호(39회)	20만원	용아회	190만원
현태일(17회)	100만원	김동욱(22회)	100만원	김태권(26회)	10만원	사공운곤(29회)	30만원	인준승(30회)	20만원	정 문(31회)	120만원	박인석(39회)	100만원	(시청 : 91만,	
17회마산동기회		김동원(22회)	300만원	김 행(26회)	200만원	송희태(29회)	50만원	임영수(30회)	50만원	정용정(31회)	50만원	양정교(39회)	10만원	사하구청 : 45만,	
(김우상, 송인창, 정광우,		김문관(22회)	20만원	김호용(26회)	200만원	양승오(29회)	80만원	임영호(30회)	30만원	정인화(31회)	12만원	이영수(39회	10만원	서구청 : 54만)	
최좌상)	100만원	김성재(22회)	50만원	박권병(26회)	200만원	윤형근(29회)	50만원	장영주(30회)	30만원	정정남(31회)	132만원	한성호(39회)	10만원	재능경분회	200만원
김김재(18회)	1000만원	김우홍(22회)	300만원	박상호(26회)	500만원	이경호(29회)	100만원	정영호(30회)	100만원	정철수(31회)	500만원	김영진(40회)	10만원	김정욱	
김동희(18회)	100만원	김정곤(22회)	200만원	박재옥(26회)	500만원	이석조(29회)	500만원	정승진(30회)	30만원	조성근(31회)	12만원	이영철(40회)	10만원	(전 경중 재직 교사)	
김재창(18회)	50만원	김진영(22회)	100만원	배윤호(26회)	50만원	이승호(29회)	100만원	정채하(30회)	60만원	조영기(31회)	24만원	강병오(41회)	10만원		100만원
김준갑(18회)	100만원	김학균(22회)	1000만원	성재업(26회)	50만원	이종모(29회)	50만원	천상일(30회)	10만원	조현우(31회)	12만원	강석희(41회)	10만원	남석희	
류승우(18회)	30만원	노세현(22회)	80만원	성재일(26회)	200만원	임광열(29회)	100만원	최상후(30회)	50만원	천장호(31회)	12만원	김기경(41회)	10만원	(전 경고 재직 교사)	
박석도(18회)	20만원	민훈기(22회)	10만원	양준영(26회)	50만원	임상훈(29회)	50만원	최영규(30회)	20만원	최경우(31회)	32만원	김범성(41회)	20만원		30만원
박준성(18회)	20만원	박상갑(22회)	50만원	엄윤섭(26회)	100만원	전장해(29회)	100만원	최우철(30회)	500만원	최봉근(31회)	12만원	김봉준(41회)	30만원	기타(이름불명)	3만원
황광건(18회)	200만원	박언표(22회)	100만원	왕정일(26회)	100만원	장 만(29회)	100만원	최재봉(30회)	100만원	최상규(31회)	12만원	김형률(41회)	50만원		
강영범(19회)	10만원	박재상(22회)	2000만원	이경호(26회)	100만원	정 갑(29회)	100만원	추태영(30회)	10만원	최재호(31회)	12만원	남관희(41회)	30만원		
김경재(19회)	100만원	손언모(22회)	100만원	이규성(26회)	70만원	정성출(29회)	100만원	하규왕(30회)	100만원	최진섭(31회)	200만원	류지섭(41회)	30만원		
김문기(19회)	20만원	유재진(22회)	1000만원	이상원(26회)	200만원	조승제(29회)	100만원	하전근(30회)	10만원	최해영(31회)	12만원	박정기(41회)	20만원		
김봉호(19회)	500만원	이동열(22회)	100만원	이순철(26회)	50만원	황유영(29회)	30만원	허영재(30회)	30만원	최호식(31회)	60만원	박선근(41회)	10만원	**합계 : 11억 4,608 만원**	

새로운 모험의 시작

The New GLA-Class.

메르세데스-벤츠 해운대 전시장
문의: 1688 - 2369(Benz)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스타자동차(주)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회 장
유제진
(22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
해운대 051-623-3421

대표번호 1688-2369(Benz)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080-001-1886

- GLA 200 CDI 2,143cc, 1,580kg, 7G-DCT, 복합연비 16.2km/ℓ(도심연비: 14.3km/ℓ, 고속도로연비: 19.5km/ℓ), 1등급, 복합CO2 배출량 120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